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보·고·서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 보고서

2004. 11.

연구수행기관 :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

연구기간 : 2004. 6. 1 ~ 2004. 11. 30

연구진 : 김 은 석 (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 실행위원)

윤 치 부 (김만덕기념사업회 실행위원)

박 찬 식 (김만덕기념사업회 실행위원)

변 종 현 (김만덕기념사업회 실행위원)

본 연구는 제주도의 용역과제로 사단법인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제주도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주 도

목 차

I. 연구개요	1
1. 연구 명칭	1
2. 목 적	1
3. 연구단 구성 및 연구 기간	2
1) 연구단 구성	2
2) 연구 기간	3
4. 연구방향 및 주요 내용	3
1) 김만덕 관련 자료 및 연구 현황 분석	5
2)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김만덕 생애 정리	5
3) 김만덕에 대한 새로운 조명	6
4)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제언	6
II.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7
1. 머리말	7
2. 만덕 이야기의 기사화	8
3. 만덕 이야기의 작품화	17
1) 인물전류	17
2) 한시류	24
3) 전설류	27
4) 드라마류	27
5) 목판 편액류	28
6) 영정류	28
7) 노래류	29

8) 기념탑류	29
4. 만덕 이야기의 고찰	30
1) 책 속에서의 고찰	30
2) 논문 속에서의 고찰	32
5. 맺음말	35
참고문헌	36
 Ⅲ. 김만덕과 조선후기 제주사회	40
1. 김만덕과 시대성	40
2. 기생제도와 신분제	41
3. 상업의 성행	47
4. 대기근과 진휼제도	50
5. 출륙금지령	55
 Ⅳ. 김만덕 삶의 현대적 조명	61
1. 김만덕 연구의 현대적 의의	61
2. 김만덕의 생애와 페미니즘	63
1) 만덕의 삶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63
2) 선구적 페미니스트의 삶	64
3) 주체적인 삶의 개척자	66
3. 김만덕의 경제 활동과 자본주의 덕목	69
1) 자본주의 덕목의 요체	69
2) 자본주의 정신의 실천	71
4. 김만덕의 성공과 기업가 정신	75
1)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75
2) 기업가 정신의 진작	76
참고문헌	81

V. 정책제언: 범국민적 운동으로	83
1. 논의 배경	83
2. 추진방향	84
1) 지속가능한 추모사업	84
2) 공익적 차원에서의 접근	85
3)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 대안 모색	85
4) 명확한 목표 설정	85
3. 기대효과	86
4. 정책제언	86
1) 만덕상 전국 확대	87
2) 학술연구사업지원	87
3) 만덕묘 성역화 작업	88
4) 홍보사업	89

1. 연구 개요

김 은 석

1. 연구 명칭

“의녀 김만덕 활약상 자료조사 연구”

2. 목 적

역사란 과거의 전부를 역사화하지 않는다. 과거 사실들 가운데 의미있다고 판단하는 것, 즉 현실의 목적과 미래의 목표를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을 특별히 기억하기 위해 선택한 과거를 역사로 기록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선시대 한 여인, 김만덕을 기억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미래, 우리 자신을 위함이다.

오늘날 제주도는 과거와는 너무나 판이한 모습이다. 조선시대 물으로 진출이 금지된 변방의 섬에 이제는 수많은 관광객이 즐겨 찾고, 세계주요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천혜의 관광지,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70년대 지역개발과 21세기 국제자유도시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되면서, 또 한편으로 제주전통문화의 위기, 제주인의 정체성 상실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가운데 심각한 것은 주민 각자가 느끼는 세계화, 개방화 등으로 인한 개인의 황폐화이다. 이처럼 엄습해 오는 개인 황폐화의 공간에서는 '서로 관여되어 있음'(loi de participation)이 실현되는 사회관계, 즉 제주인, 제주문화, 제주인공동체 등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이러는 가운데 김만덕이라는 한 개인을 기억함으로써 제주인의 통합과 자기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 시대의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이 가시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김만덕은 누구인가? 우리는 김만덕의 생애를 통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시대의 표징과 소명을 가장 정확히 읽고 실천한 선구자임을 알 수 있다. 김만덕은 정조로부터 당대 최고의 정치가, 실학자들까지 그 뜻에 감동할 정도로 도민과 지역사회를 구해내기 위하여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 휴머니스트일 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권위와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여성의 존재 이유를 몸으로 실천하신 분이였다. 또한 주체의식을 갖고 천명의 인류애를 주창한 선각자이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더불어 살기를 희망했던 위대한 여성이였다.

김만덕의 삶은 순조 12년(1812년) 10월 12일 74세로 끝맺음 하였다. 우리는 그녀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나간 200년 가까운 세월 우리는 역사의 궤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의 표징을 읽고, 다시 다가올 역사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소명을 부여 받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외형적 변화는 물론 내면적 변화까지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김만덕의 숭고한 이웃사랑을 위하는 정성과 희생은 도민적 정화(精華)로 화하여 바야흐로 우리의 가슴에 진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김만덕의 정신과 실천적 삶은 지금을 사는 우리의 표상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녀의 발자취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21세기 새로운 상을 정립할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그 열을 이어받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계발하고 창조적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목적에서 착수된 것이고, 여기서 나타난 결과물이 과거 김만덕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고 그것을 귀감으로 삼는 좌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3. 연구단 구성 및 연구 기간

1) 연구단 구성

- 기획 총괄: 김 은 석(김만덕기념사업회 이사, 실행위원)
- 연구 성과 분석: 윤 치 부(김만덕기념사업회 실행위원)
- 생애 및 역사 연구: 박 찬 식(김만덕기념사업회 실행위원)
- 21세기 김만덕상 연구: 변 종 현(김만덕기념사업회 실행위원)

2) 연구 기간: 2004년 6월 1- 11월 30일

조사기간은 2004년 6월 1일부터 2004년 11월 30일까지이며, 지금까지의 김만덕 관련 문헌 연구, 유적지 현장조사 및 새로운 자료발굴을 통해 김만덕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한 새로운 필요성을 서술하였다.

4. 연구방향 및 주요 내용

우리 사회에서 의인을 기리는 것은 일반인들로 하여금 동일한 집합적 정체성을 갖게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바로 이 집합적 정체성이야말로 예컨대, 애교심, 애향심, 애국심과 같은 정치적 실천에 핵심적 자산이 된다.

슈어츠에 의하면 링컨기념사업회는 링컨을 통해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끈 북부의 해계모니를 강화함과 동시에 전 미국인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재구성된 것이다.¹⁾

김만덕의 삶과 정신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이런 문화적 자산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실천의 하나이다. 즉 지역사회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상징인 김만덕의 행위를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은 제주인의 상징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김만덕은 잘 알다시피 1790년경 제주 지방에 불어닥친 지독한 흉년으로 굶어 죽는 이가 속출하자 천금을 내어 도민들을 구해낸 인물이다. 추사 김정희는 만덕의 행적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는 뜻으로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편액을 써서 그녀를 높은 뜻을 기렸다.

김만덕의 행동에 감동한 것은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자 대학자뿐이었겠는가? 당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그녀의 은덕을 칭송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주목하는 점은 또 하나 있다. 당시 진휼이 끝나자 제주목사가 조정에 만덕의 선행 사실을 알렸다. 이에 정조는 제주목사에게 명하기를 “만덕을 불러서 그 소원을 물어보고 난이를 논하지 말고 특별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

1) Barry Schwarz, "The Social Context of Commemoration: A Study in Collective Memory," *Social Forces*(1982), pp.61-2.

목사가 임금의 유지를 전하자 “다른 소원은 없고 오직 임금을 배알하고 금강산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잘 알다시피 여행이 자유로워진 것은 한 세기도 채 안 된다. 요즘 일간지 하단은 여행사의 상품 광고로 도배되다시피 한다. 그러나 조선시대 제주 주민의 경우 여행은커녕 육지 나들이조차 불가능했다. 19세기 민비를 배알한 한 영국인 저술가이자 여행가가 자기의 여행경험을 말하자 민비는 종묘제례를 위해 정기적으로 종묘를 방문할 때 지나던 길을 제외하고는 서울 거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다. 이 폐쇄된 사회에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녀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낯은 인습과 관행에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면 임금을 배알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당시 소위 출륙금지령으로 여성의 육지 나들이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육지로 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김만덕은 기존의 관념과 규범을 뛰어넘을 수 있던 여인이었다. 사실 사농공상의 관념이 팽배한 당시만 해도 여성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생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객주를 운영하면서 당시 그 곳을 드나들던 상인들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해 나갔다. 당시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해상교통이 발달하면서 포구를 중심으로 유통업이 성행하던 때였다. 만덕은 이러한 사회변화를 주목하면서 외지상인들의 물건을 위탁 판매하는 중간상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만덕은 여성에게 주어진 한정된 역할을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갔다는 점에서 오늘날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다. 신분제사회에서 자신의 소원을 말하라고 했을 때 평범한 사람이면 신분상승을 욕구를 피력하는 것이 상례인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육지 나들이를 자신의 소원으로 거침없이 내뱉은 것도 출륙금지령으로 억눌린 제주인들의 한을 대변하는 일은 아니었을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그녀의 행동에서 볼 수 있듯이 낯은 인습과 관행에 도전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면 임금을 배알하고 싶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사실 이러한 기개가 있었기에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기개는 돈을 모으는 데에만 발휘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자신의 부를 이웃을 위해 과감히 환원

하게 했던 것이다.

18세기제주 여성으로 태어나 수많은 인명을 구해낸 그녀의 삶은 전통적인 봉건사회의 남성들을 움직여 영의정 채제공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들로 하여금 그녀를 찬양하는 시와 전기를 쓰게 한 것이다. 또한 21세기에 들어와서도 만덕을 재조명하는 일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이 팽배하던 조선시대는 물론 오늘날까지 여성을 찬양하고 그 정신을 배우도록 자신의 삶을 실천에 옮긴 김만덕, 그녀의 삶은 금기를 깨는 제주여성의 진취적 기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 보고서는 김만덕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새로운 조명을 시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갔다.

1) 김만덕 관련 자료 및 연구 현황 분석

김만덕에 대한 관심은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전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만덕에 대한 사실적 차원의 기록이고, 둘째 만덕 이야기를 작품화하는 것이며, 셋째, 이 두 가지를 기초로 한 만덕에 대한 연구이다.²⁾

따라서 일차적으로

- 김만덕 관련 자료를 소개하고 지금까지 연구 성과 분석하고
- 가능하다면 새로운 자료를 추가 발굴해 나갔다.

2)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김만덕 생애 정리

- 영, 정조 시대의 상공업의 발달 등 조선 사회의 사회경제적 배경
- 김만덕의 삶
- 김만덕의 역사적 의의를 기술했다.

2) 윤치부, “만덕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여성의 시대, 새로운 김만덕상』(김만덕기념사업회워크숍발표문, 2004. 7), p.6.

3) 김만덕에 대한 새로운 조명

21세기는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대이다. 김만덕에 대한 새로운 조명도 예외는 아니다. 김만덕을 의인 또는 자선가라는 인식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스테레오 타입화된 이미지로는 21세기에 부합될 수 없다. 지금까지 김만덕상(像)이 타자중심으로 만들어져 왔다면 이는 일부 계층의 인물로만 남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만덕은 시대와 지역을 뛰어 넘는 인물로 추모하기 위해서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의 객관적 흐름 속에서 이미 자본주의 경제적 안목을 가진 선구적 인물,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새로운 상도(商道)를 보여준 휴머니스트, 그리고 그녀의 삶을 여성주의라는 측면을 생각하는 중층적인 광역화를 생각함으로써 김만덕의 정체성이 더욱 더 명확하게 주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 21세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진취성과 역동성을 지닌 슈퍼우먼으로서의 김만덕
- 페미니스트로서의 김만덕
-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경제인으로서의 김만덕 등 새로운 21세기에 알맞은 김만덕상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4) 김만덕 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제언

정책은 그 시대정신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도 보편적 진리나 거대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 보다는 구체적인 과제나 활동, 창조적이고 실험적이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 김만덕 관련 사업에 대한 평가와 방향 모색
- 김만덕 추모사업 관련 정책을 제언했다.

II.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연구의 사적 전개

윤 치 부

1. 머리말

김만덕(1739~1812)은 조선 영조 때의 제주 출신 여류 자선가이다. 본관은 김해(金海)로³⁾ 아버지 김응렬(金應悅)과 어머니 고씨(高氏) 사이에서 2남1녀의 고명딸로 북제주군 구좌읍 동북리에서 태어났다.⁴⁾ 위로는 만석(萬碩), 만재(萬才) 두 오빠가 있었고, 증조부는 성순(性淳)이며 조부는 영세(永世)로 응선(應先), 응남(應南), 응신(應信), 응열(應悅)의 4형제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남달리 근실한 성품이었으며 장사에도 수완이 있어서 전라도 나주를 오고 가면서 제주에서 나는 미역·전복·굴 같은 물건들을 내다 팔고 그곳에서 쌀을 사다가 제주에 파는 상인이었다. 만덕이 11세 되던 가을에 나주에서 돌아오던 만덕의 아버지는 그만 큰 풍랑을 만나 세상을 떠나고 만다. 아버지의 죽음은 어머니에게도 큰 충격이 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반 만에 어머니도 세상을 떠난다.⁵⁾ 그녀는 불행하게도 어린 나이에 부모를 사별하고 외삼촌집에 기탁되었으나 여의치 않아 무근성에 사는 퇴기 월중선(月中仙)에 의지하게 된다. 이로써 11살의 어린 나이에 기적에 오르게 되나 특히 어렸을 때 어머니가 들려준 김천덕(金天德) 열녀 이야기는 그녀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자신으로 집안이 천민으로 대우받는 것이 괴로웠다. 관가에 나가 기녀명단에서 삭제해 줄 것을

3) 일부 문헌에는 본관이 경주로 되어있기도 하다.(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81, p.23. ; 김태능, “의녀 김만덕전”,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431. ; 김찬흠 편저, 『제주사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2, p.96.) 그러나 김만덕의 <구묘비문>에는 본관이 김해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김해가 맞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일부 문헌에는 제주성내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었다.(김봉옥, 『구원의 여인 김만덕』, 제주도, 1989, p.25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p. 89.)

5) 박용옥, “만덕”, 『여성』 17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81, p.50.

호소하나 거절당하자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목사인 신광익(申光翼)과 판관 한유추(韓有樞)를 찾아가 본래 양가 출신으로 부모를 잃고 가난으로 부득이 기녀가 되었으나 위로 조상에게 부끄러우니 다시 양녀(良女)로 환원시켜 준다면 집안을 다시 일으키고 특히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약속하고 기녀 명단에서 제명받는다. 이렇게 해서 20여 세에 관기생활을 청산하고 봉옥, 복심 두 딸이 있는 30대의 고선흠(高善欽)과 부부 사이가 된다. 그러나 얼마 후에 돌림병으로 남편마저 병사한다. 이후 그녀는 돈을 벌어 세상에 도움을 주겠다는 일념하에 산지(山地)에 객주집을 차리고 제주의 특산물인 말총·미역·전복·양태·우황·진주 등을 서울 등지에 팔거나 기녀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하고 천냥부자가 된다. 1790년(정조 14년)부터 1794년(정조 18년)까지 5년 간 제주 지방에 흉년이 들어 제주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자 그녀는 1천금을 내놓아 배를 마련하고 육지로 건너가 연해에서 곡물을 사들여 10분의 1은 내외 친척과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일보는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나머지 450 석은 모두 관가로 보내어서 구호곡으로 쓰게 하였다. 이로써 1796년 만덕은 58세 때 정조 임금의 은혜를 입고 관원의 안내로 제주를 출발하여 해남, 강진, 영암, 정읍, 공주, 수원을 거쳐 한양에 이르고⁶⁾ 그녀의 소원인 금강산 유람을 실현하게 된다. 『

이와 같은 김만덕에 대한 관심은 지금까지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첫째가 『정조실록』의 기사처럼 만덕에 대한 사실적 차원의 기록이고, 둘째가 채제공의 <만덕전>처럼 만덕 이야기를 작품화하는 것이며, 셋째가 앞의 두 가지 사항을 기초로 하여 만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만덕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만덕 이야기의 기사화

김만덕에 대한 기사는 처음으로 1796년(정조 20년)의 사실적 기록인 『정조실록』에

6) 이순구, “김만덕,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1』, 한국여성개발원, 1998, p.137.

나타나나 그 내용은 매우 간결하다.⁷⁾

제주 기생 만덕이 재물을 풀어서 굶주리는 백성들의 목숨들을 구하였다고 목사가 보고하였다. 상를 주려고 하자, 만덕은 사양하면서 바다를 건너 상경하여 금강산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허락해 주고 나서 연로의 고을들로 하여금 양식을 지급하게 하였다.⁸⁾

김만덕에 대한 실록의 기록은 단지 세 가지 화소로만 되어 있다. 만덕의 제주 백성 구휼, 금강산 유람의 소망, 금강산 유람시 인근 마을에서 양식 지급 등의 이야기이다. 이로 보면 김만덕에 대한 『정조실록』의 기록은 간략하기는 하지만 만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수록하고 있는 셈이다. 첫 번째 이야기는 김만덕이 왜 『정조실록』에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원인이 되는 이야기이다. 제주에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들자 그녀의 전재산을 내어놓아 양곡을 사들이고 이로써 제주 백성들을 구휼한 이야기를 압축한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에 따라 제주목사 유사모(柳師模)가 만덕을 불러서 정조 임금의 유지(諭旨)를 전하고 소원이 무엇인지 물음에 따라 만덕이 금강산 유람을 원하는 내용이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조께서 이를 허락하고 연도의 고을로 하여금 만덕의 금강산 유람에 따른 양식들을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면 만덕의 신분을 기생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조실록』의 기록은 조금씩 상세화되면서 『승정원일기』나 『일성록』 등에 기록되고 있는 셈이다.

『승정원일기』 정조 20년 24일조에도 김만덕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들 내용은 채제공과 정조 임금의 대화로써 만덕에게 식량과 노자를 주어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비변사가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25일조에는 『일성록』에 기록된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 수록되기도 하였으며, 28일조에는 김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진신대부(摺紳大夫)들이 기록했다든지 남자도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해냈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음은 24일조의 내용 전문이다.

7) 민족문화추진회, 『정조실록』 22, 민족문화추진회, 1993, p.296.

8) 丙寅 濟州妓萬德 散施貨財賑活饑民 特使啓問將施賞 萬德辭 願涉海上京 轉見金剛山 許之 使沿邑給糧(『정조실록』 정조20년 11월 25일조)

채제공이 이르기를 탐라의 기녀가 재산을 바쳐 백성을 진휼하였으나 상 받기도 면천(免賤)하기도 원치 않고 왕성과 금강산 보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따르도록 하는 명함이 있어 비로소 상경하였으나 흑한을 당함에 작은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기다리는 바 신에게 찾아와 울며 말합니다. 그녀는 비록 미천한 사람이나 그 뜻이 가히 고상하고 그 정이 가히 가련하니 유사에 분부하여 특별히 가없이 보살피 줌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께서 아뢰시기를 탐라인의 조정 진휼을 다른 도에 본받게 하고 또 별도로 그녀는 한 사람의 미천한 기생으로서 의로움을 발하여 재물을 내어놓고 곤궁한 백성들을 구휼하니 매우 가상한 일이며, 그 소원이 또한 평범하지 않고 이미 상경한 후니 어찌 길에서 굶주리게 하랴. 비변사로 그녀에게 물어 머물도록 하여 봄이 될 후에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양식과 노자를 주고 고향에 보내되 이로써 이들이 없음을 알려라. 병모가 말하기를 신은 비변사에 이 일을 고함이 황송하옵니다.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작게 여기지 말고 전후를 대신과 재상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하여 안심하는 것이 가하다. 이로써 명하고 물러나시니라.⁹⁾

또한 『일성록』의 정조 20년 11월 25일조에도 만덕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 내용은 만덕이 상 받기도 면천받기도 원치 않고 바다를 건너와서 왕성과 금강산을 보고싶어 하는 일, 만덕을 내의원행수로 삼은 일, 금강산 유람할 때 양식과 노자를 지급토록 한 일 등의 내용이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재물을 모아 굶주리는 백성을 구휼함이 조정에 알려져 그녀의 소원을 물은 바 상받기도 면천받기도 원치 않고 단지 바다를 건너 서울에 와 금강산을 보는 것이라 하니 몹시 추워서 부득이 출발하지 못했다. 비록 천민이나 옛날 열협(烈俠)에 부끄러움이 없으니 봄이 될 동안 양식을 지급하고 내의원 행수로 삼고 각별히 볼 수 있도록 했다. 금강산을 보고 돌아갈 때 연도의 도신(道臣)들이 양식과 노자를 지급토록 했다.¹⁰⁾

9) 濟恭曰 耽羅妓 捐財賑民 不願受賞 不願免賤 願一觀王城 仍入金剛山 有從願之命 纔上來而適值極寒 彷徨狹邸 來見臣泣訴 渠雖賤類 其義可尙 其情可憫 分付有司 另加顧恤 似好矣 上曰 耽羅人之朝家軫恤 視他道 尤別 渠以一賤妓 出義捐財 助賑窮民 已極可駕 而其所願 亦不碌碌 祭已上來之後 何可使呼飢道路 自備局更問于渠 如欲留 開春後下送金剛山 使得觀玩後給糧資 津送本鄉 以示無物不遽之意可也 秉模曰 臣於備堂現告事 不勝惶悚矣 上曰 本事不過微細 大臣之以卿宰時事八現告 勿論前後何限 卽其安心可也 仍命退(『승정원일기』 嘉慶元年丙辰 11월 24일조)

10) 貨累 賑活飢口 事聞朝廷 問渠所望 則不願受賞 亦不願免賤 所願只在於涉海上京 轉見金剛云 而

다음으로는 1812년(순조 12년) 10월 22일 만덕이 죽고나서 한 달이 지난 다음인 11월 21일에 세워진 <구묘비문(舊墓碑文)>에서 사실적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김만덕의 본은 김해김씨요 곧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다. 그러나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敎坊)에 의탁한 바 되었으나 의복을 줄이고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여 재산이 대단히 커졌다. 정조 을미년에는 제주도민이 크게 굶주렸는데 능히 재산을 기우려 곡식을 육지에서 운반하여다가 심히 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렸다. 목사가 이 착한 사실을 아뢰니 임금께서 무엇이 소원이냐고 물으셨는데 대답하기를 「화려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하였으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아보게 하고, 내의원 의녀로 삼아 여러 차례 은총을 내리시고 역마를 내려주어 일만이천봉을 두루 유람하고 급기야 서울로 돌아오니 이로 인하여 공경대부 모두가 글과 전기를 써주었으니 비록 옛적에 착하고 아리따운 여자라 하더라도 무릇 방불케 하였고 눈은 쌍겹눈으로 환하고 맑았다. 다만 천도가 무심하여 아이가 없는 게 애석하다. 그러나 양손 시채(時采)가 동기간에서 출계하여 유지를 잘 지키고 영구히 향화하니 또한 섭섭하지 않게 보답하고 있다. 원능(元陵 : 영조의 능으로 영조를 말함) 기미년(영조 15년)에 낳고 지금 임금(순조 12년) 10월 22일에 죽었으므로 다음달에 70년묘(竝園旨)에 장사하니 갑좌(甲坐: 약간 남쪽으로 기울어진 서쪽)의 무덤이다. 임금이 즉위하신지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우다.¹¹⁾

<구묘비문>의 기록은 <정조실록>의 기록보다 좀더 자세한 기록이 덧붙여져 있다. 만덕의 본관이 김해김씨이고, 탐라의 좋은 집안의 딸이고,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교방에 의탁되었고, 공경대부들이 글과 전기를 써주었고, 70의 나이에든 용모가 몹시 아름다웠고, 양손 시채가 출계하였고, 1812년(순조 12년) 10월 22일 세상을 떠나 70년

仍值極寒 不得發向 渠雖賤物 義氣不愧古之烈俠 開春間給糧料 直充內醫院差備待令行首醫女 屬之首醫 各別願見 見金剛還送時 分付沿路道臣 優給糧資(『일성록』 정조20년 11월 25일조)

- 11) 金萬德 本金海 卽耽羅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靡曼托跡敎坊 縮衣損食 貲產滋大 歲在 正宗朝乙卯 島人大飢 能傾財運穀 活命甚衆 牧伯賢之以聞 上問何所欲 對曰 願見京華金剛之勝 而已特命縣次續食 充內醫女寵頒便蕃 因鋪馬便覽萬二千峯 及其還 卿大夫 皆嘏章立傳 雖古賢媛 蓋未嘗 七旬顏髮 彷彿仙釋 重瞳炯澈 但天道無心 惜乎無兒 然養孫時采 出自同氣 克遵遺志 永香火亦復奚憾 生于元陵己未 終于當宇壬申 十月二二日 以翌月窆于並園旨 甲坐之原 上之卽位十二年 十一月二十一日立(김봉옥,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1989, pp.87~88.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pp.141~142.)

마루에 장사지냈고, 1812년(순조 12년) 11월 21일에 비를 세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정약용의 『다산시문집』¹²⁾에도 '탐라의 기생 만덕이 얻은 진신대부(摺紳大夫)의 증별시권(贈別詩卷)에 제함'이라는 제목으로 '을묘년(1795)에 탐라에 흥년이 들었는데, 만덕이 의연금(義捐金)을 내어 구원하여 줬었다. 그의 소원이 금강산을 구경하고자 함이었는데, 임금의 분부로 소원을 들어주게 하였다.'라고 김만덕을 소개하고 있다. 다음에 그 인용문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병진년(정조 20, 1796) 가을에 탐라의 기생 만덕이 역마(驛馬)로 서울에 불러왔고, 이듬해 봄에 만덕이 금강산에서 돌아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적에 좌승상 채공(蔡公, 蔡濟恭)이 그를 위해 소전(小傳)을 지어 매우 자세하게 서술하였으므로 나는 덧붙이지 않는다. 나는 만덕에게는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기적(妓籍)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이 한 가지 기특함이고,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이 두 가지 기특함이고, 바다섬에 살면서 산을 좋아함이 세 가지 기특함이다. 그리고 여자로서 중동(重瞳, 겹으로 된 눈동자)이고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았고, 기생으로서 중(僧)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하였고, 외진 섬사람으로 내전(內殿)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이 네 가지 희귀함이다. 아, 보잘것없는 일개 여자로서 이러한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을 지녔으니, 이 또한 하나의 대단히 기특한 일이다.¹³⁾

특히 다산은 만덕의 기사에 대해 세 가지 기특함과 네 가지 희귀함이 있다고 평하고 있다. 즉 기적에 실린 몸으로서 과부로 수절한 것, 많은 돈을 기꺼이 내놓은 것, 탐라에 살면서 금강산을 좋아한 것이 세 가지 기특함이고, 여자로서 중동인 것, 종의 신분으로서 역마의 부름을 받은 것, 기생으로서 중을 시켜 가마를 메게 한 것, 탐라 사람으로서 내전의 사랑과 선물을 받은 것 등이 네 가지 희귀함이라고 하고 있다.

남만리의 『탐라지』 권1 '인물'조에도 '의기만덕(義妓萬德)'이라는 이름으로 김만덕을 소개하고 있다. <정조실록>의 기록보다는 자세하게 기록되었으나 <구묘비문>의 기

12) “兵辰秋 耽羅妓萬德 驛至京越 明年春 萬德回自金剛 將還其鄉 左丞相蔡公 爲立小傳 敘述頗詳 余不贅 余論萬德有三奇四稀 妓籍守寡一奇夜 高貲樂施二奇也 海居樂山三奇也 女而重瞳 子婢而被驛召 妓而令僧肩輿 絕島而受內殿寵錫四稀也 嗟以一眇小女 負此三奇四稀 又一大奇也”(정약용, “題耽羅妓萬德所得摺紳大夫贈別詩卷”, 『정다산전서 시문집』14권, 題)

13) 정약용, 『국역다산시문집』, 민족문화추진회, 1997.

록보다는 축약되어 있다. 그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기 만덕은) 양가의 딸로서 기적에 올랐는데, 몸을 잘 다스려 수천금을 이루었다. 갑인년에 크게 흉년이 들매 재산을 내어놓아 기아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구하였다. 정조 임금께서 들으시고 기특하게 여겨, 목사에게 소원을 묻도록 하였는데, 소원이 왕이 사는 곳과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식량과 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가 하면, 서울에 도착하자 내의녀로 삼았다. 임금께서 친히 보시고 상을 내리시어 후사하였다. 금강산을 구경하고 서울에 돌아와 떠나려 하자 채제공이 전을 지어주고 보내었다.¹⁴⁾

김석익의 『탐라기년』에도 김만덕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 보인다. 그리고 이 기록은 우락기의 『제주도』에도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¹⁵⁾ 다음은 기록된 내용의 전문이다.

행수(行首) 김만덕은 본주(本州) 양가의 딸이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독하게 가난과 고생으로 자랐는데 살결이 곱고 아름다우므로 교방에 의탁한 바 있었는데 근검하여 큰 재산을 이루었다. 이 해 봄, 도내에 큰 기근이 일매, 만덕은 재산을 내놓아 곡식을 운반하여다가 많은 사람을 구제하였으므로, 목사는 이 어진 일을 아뢰니, 왕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음에 대답하여 가로되 변화한 서울과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보고자 할 따름이다 하므로 특명으로 고을과 고을을 이어가며 돌보게 하고 내의녀(內醫女)로 삼아 편전(便殿)에 붙여 은총을 베풀었고, 역마를 주어 금강산을 편람하게 하고, 또 그가 돌아올 때는 경대부들 모두가 신장(摠章)을 지어 행차를 빛내어 주었다. 만덕은 칠순이나 용모가 보살을 방불케 하였으며, 눈은 쌍겹눈으로 환히 맑았다. 채제공 정승이 만덕을 위하여 전기를 썼다.¹⁶⁾

김두봉의 『제주도실기』에도 '제27장 열녀'편에 '여자 중 특이한 인물'이라는 소제목

14) 以良家女 托名妓籍 善治生身 致累千金 當甲寅大饑 盡散其財賑飢民 正廟聞而嘉之 命守臣問所願 願一見王都及金剛山 命給馬上送 入京即付內醫女 招見差蒲門外賞賜甚厚乘駟傳食 往遊金剛還到京 歸本土蔡相濟恭作傳而遺之(남만리 편, 『탐라지』 권지일, 인물조)

15) 우락기,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1980, p.827.

16) 行首金萬德 本州良家女也 幼而失恃 零丁貧苦長 而靡曼托跡教坊 縮衣損食 貨產致大 是年春 島內大飢 萬德傾財 運穀濟活甚衆 牧使賢之以聞 王問何所欲 對曰 願見京華金剛之勝而已 特命縣次續食充 內醫女寵頒便蕃 因給舖馬 便覽金剛山 及其還朝之 卿大夫皆摠章侈行 七旬顏髮 彷彿仙釋 重瞳瑩澈 蔡相濟恭 爲之立傳(김석익, 『탐라기년』 :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p.422.)

으로 '자선심(慈善心)이 풍부하고 가난한 사람을 많이 구생(救生)한 행수(行首) 내의녀(內醫女) 김만덕의 사실'이라 하여 김만덕을 소개하고 있다.

김만덕의 본관은 김해이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고 자랐으나 장성한 뒤에 더욱 의탁할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몸을 교방(敎坊)에 의지하고 생활하였다. 그러나 근검 절약으로 재산을 점점 늘렸다. 제주에는 연이어 갑인년 같은 흉년이 들어 개국 404년 정조 19년(1795) 봄에는 제주도민이 모두 굶주려 죽게 되었다. 이때에 김만덕은 큰 솥 둘을 걸어놓고 콩죽을 쑤어 한 사람에게 한 그릇씩 나누어 주며 많은 재물을 풀어서 사방의 곡식을 사들여 정월부터 4월까지 한결같이 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제하였다. 그 때문에 섬 안은 큰 기근을 면하고 살았으므로 당시 목사 와 대중들의 칭송이 자자하였다. 목사 이우현(李禹鉉)이 이 사실을 나라에 주달(奏達)하자 성상께서 들으시고 아름답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그의 소원을 묻게 하였더니 “첩은 여자라 별 소원이 없고 성상이 계신 서울과 조선의 명승지인 금강산 구경이 소원입니다.”하였다. 목사가 이 대답을 주달하니 특명을 내려 각현(各縣)으로 하여금 그를 접대하게 하고 서울에 도착한 뒤에 내의녀(內醫女)에 임명하였다.

임금께서 친히 만덕의 손을 잡으시고 칭찬하기를 네가 백성을 많이 구황(救荒)하였다 하니 참으로 자선(慈善)한 사람이라 하고 서울을 구경시킨 뒤 역말을 주어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금강산 1만 2천봉을 낱날이 구경시켰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 향대부(鄕大夫)들이 별장(別章)을 지어주고 영의정 채제공이 전기를 지었다. 이러한 출신으로 이러한 사업을 한 이는 옛날의 어진 부인들 중에도 보지 못한 일이었다.

사람됨은 몸이 비대하고 키가 크며 말씨가 유순하고 후덕한 분위기가 나타났고 눈은 쌍거풀이었다. 칠순이 되도록 성상이 잡으셨던 왼 손목을 비단으로 감싸서 살빛을 감추었고 흰머리와 얼굴 빛은 희어서 부처라 불렀다.¹⁷⁾

앞서의 기록에 비해서 특이한 것은 김만덕의 외모와 말씨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몸이 비대하고, 키가 크고, 말씨가 유순하고, 후덕하고, 눈이 쌍거풀이었고, 흰머리였고, 얼굴빛이 희었고, 그래서 부처라고 불리었다는 내용이다.

담수계의 『증보탐라지』 '16. 인물'편의 '11. 의녀'조에도 앞서의 내용들과 함께 특히 만덕의 몸은 부대(富大)하고 키는 장대하였고 겹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¹⁸⁾ 다음에 그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7)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p.85. :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도실적연구소, 1932, pp.88~89.

本州良家女로서 幼年에 失恃하여 貧困이 莫甚하더니 及長에 敎坊에 托籍하여 縮衣損食하여 資産이 大致라. 正廟 19年 乙卯春에 道內가 大飢어늘 萬德을 盡散하고 糧穀을 貿運하여 貧民을 救濟함이 甚多라. 牧使 奇히 하여 以聞하니, 王이 牧使에게 命하여 그 所願을 聞케 하였는데, 萬德이 對曰 王都와 金剛山을 求京함이 所願이라 하니 王이 特命을 下하사 縣次로 續食케하고 京城에 之한 後에는 內醫女에 充하다. 王이 萬德의 左手를 執하고 稱讚한 後 京華를 다 求景케 하고 舖馬를 給하여 道伯으로 하여금 金剛山을 遍覽케 하니라. 旅行을 마치고 還朝하니 卿大夫가 다 別章을 주고 領議政 蔡濟恭이 立傳하다. 爲人이 居이 富大하고 키가 長大하여 言語가 溫順하며 外形에 厚德한 맛이 나타나고 그 눈은 重瞳이 瑩澈하여 老年七旬에 顏髮이 仙釋에 彷彿하다.

석주명의 『제주도수필』에도 'Ⅲ. 인문'의 '5. 관계인물'편에 김만덕에 대해 간단히 기록하고 있다. 앞서의 <정조실록>이나 <구묘비문>과 다른 내용은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었다는 내용이다.¹⁹⁾

한치문의 『탐라실록』에도 김만덕에 대한 사실적 기록이 보인다.²⁰⁾ 제주의 역사적 인물을 소개하면서 '만고기인 김만덕 여인'이라는 제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바 앞서의 김두봉의 『제주도실기』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다만 추사 김정희가 '은광연세(恩光衍世)'라는 목판을 그녀의 후손에게 주었다는 사실 등이 더 첨가되었을 뿐이다.

『제주도지』에서는 '제1편 역사, 제3장 근세사, 4. 이재와 구호'라는 장절에서 양가의 딸, 조실부모함, 교방에 의탁함, 기적에서 벗어나 독신으로 근검절약하여 육지와 무역을 통한 거상이 됨, 천금을 내어놓아 구호곡을 사들여 구휼함, 목사가 이 사실을 조정에 알림, 정조가 만덕의 소원을 물음, 한양과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다고 아뢰면, 만덕이 지나는 고을마다 행로를 돌보게 함, 하경 후 여의반장직을 주어 임금을 알현하게 함, 좌의정 채제공이 <만덕전>을 지어 위로한 일 등이 차례로 기술되었다.²¹⁾

『제주시30년사』에서는 '제2편 향토사, 제3장 근세사, 제24절 김만덕의 진휼'이라는

18) 담수계, 『증보탐라지』(프린트판), 1954. : 담수계,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4, p.358.

19) 석주명, 『제주도수필』, 보진재, 1968, p. 85.

20) 한치문, 『탐라실록』, 1973, p.94.

21) 제주도, 『제주도지』 상, 제주도, 1982, p.251.

장절로 김만덕의 가계, 기방에 의탁하였다가 양녀로 복귀된 일, 식산에 전념한 일, 흥년이 들자 천금을 내어 제주 백성을 구휼한 일, 만덕이 임금께 소원을 구한 일, 상경하여 내의원 의녀반수를 제수받고 임금을 알현한 일, 금강산을 구경한 일, 체제공이 전을 지어 준 일, 이가환이 시를 써 준 일, 만덕이 74세로 운명한 일, 김정희가 후손에게 편액을 써준 일 등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²²⁾

부영성의 『구좌읍지』에도 동북리 마을편에 정비석의 『명기열전』을 참고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김만덕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의 내용과 달리 새롭게 기록된 사실은 동북리에서 김응렬의 2남1녀 중 고명딸로 태어났고, 부모를 사별하고 외삼촌댁에 기탁되었고, 무근성의 퇴기 월중선(月中仙)에 의해 10살에 기적에 오르게 되었고, 봉옥·복심 두 딸이 있는 30대의 고선흠(高善欽)과 가정을 꾸리나 사별한다는 내용이다. 이 외에도 '명기 물산객주로 1년 만에 천냥부자'와 '경술 계축 갑인년의 잇따른 흉년'이라는 소재목 밑에 김만덕과 관련된 사실들을 비교적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모충사로 묘를 옮긴 사실과 김만덕기념탑을 건립하여 김만덕을 기리고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있다.²³⁾

『북제주군지』에서는 '제2편 향토사, 제4장 근세사, 제29절 김만덕의 진휼'의 장절에 김만덕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주시30년사』의 내용과 비슷하다.²⁴⁾

강용삼·김봉옥·김종업·홍순만의 『제주선현지』에서는 '제3장 향토인물, 제2절 애국위향인'의 장절에 '김만덕'항을 설정하고 체제공의 〈만덕전〉, 김석익의 『탐라기년』, 『제주통사』 등을 참고하여 김만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데, 앞서의 내용들과 비슷한 것들이다.²⁵⁾

김찬흡의 『제주사인명사전』에서는 『왕조실록』, 『이향견문록』, 『탐라인물고』, 『탐라기년』, 『제주여인상』, 『제주도사논고』, 『명기열전』, 『구좌읍지』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김만덕에 대한 비교적 총체적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앞서의 내용들과

22) 제주시, 『제주시30년사』, 제주시, 1985, pp.197~198.

23) 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pp.119~121.

24)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1987, pp.193~196.

25) 강용삼·김봉옥·김종업·홍순만, 『제주선현지』, 제주도, 1988, pp.260~261.

달리 특이한 것은 금강산의 사찰들을 보고 불제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일, 이가환이 김만덕을 송별할 때 〈만덕 제주의 기녀〉라는 한시를 지어 준 일, 영의정 채제공이 옥지환과 〈만덕전〉을 선사한 일, 한라예술제에서 만덕봉사상 제도를 마련한 일 등의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²⁶⁾

3. 만덕 이야기의 작품화

김만덕 이야기의 작품화는 크게 인물전류와 한시류, 그리고 목판 서예 글씨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주된 것은 인물전류로써, 채제공의 『번암집』이나 이재채의 『오원집』이나 심노승의 『계섬전』에 수록되어 있는 〈만덕전〉, 정비석의 『명기열전』의 〈제주기만덕〉, 이전문의 〈제주의 첫 여상인·만덕〉,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 등이 있으며, 한시류 작품으로는 이가환의 『금대시문초』에 수록된 〈송만덕귀탐라(送萬德歸耽羅)〉, 박제가의 〈증만덕(贈萬德)〉,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 수록되어 있는 기생 홍도(紅桃)의 시, 조수삼의 『추재기이』의 한시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김만덕과 관련된 전설이나 드라마, 목판 편액, 영정·노래·기념탑 등이 있다.

1) 인물전류

채제공의 『번암집』에 수록되어 있는 〈만덕전〉은 김만덕이 1797년(정조 21년) 정조의 배려로 금강산을 구경하고 나서 서울에 돌아와 제주로 돌아오기 직전 채제공에게 작별인사를 고할 때 건네준 인물전이다. 채제공은 이 자리에서 “진 나라 시황제나 한 나라 무제는 모두 해외에 삼신산(三神山)이 있다 하였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나라 한라산은 곧 영주요, 금강산은 봉래라 하였다. 너는 탐라에서 태어났으니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 물을 마셨고, 이제 금강산도 두루 구경하였으니 삼신산 중에 둘을 구경한 것이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너는 여자의 몸으로 구경하였으니 그 얼마나 장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냐. 이제 작별함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26) 김찬흠, 앞의 책, pp.96~97.

가련한 태도는 마땅하지 않구나.”하면서 만덕의 모든 행적을 <만덕전>이라 이름짓고 웃으면서 건네주었다. 이러한 채제공의 <만덕전>은 그 이후 유재건의 『이향견문록』, 김태능의 『김만덕전』과 『제주도사논고』, 이가원 교주의 『이조한문소설선』, 김봉옥의 『구원의 여상 김만덕』과 『모충사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김건우 편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았다』 등 여러 책에 인용하게 된다.²⁷⁾ 다음은 이가원 교주의 『이조한문소설선』에 수록된 채제공의 <만덕전>이다.

만덕의 성은 김이니, 탐라에 살고있는 양가의 딸이었다. 그는 어릴 때에 어머니를 여의고는 의탁할 곳이 없어서 스스로 기생 노릇을 했다. 조금 자라나자 관가에서 만덕의 이름을 기안(妓案)에 올렸다. 만덕은 비록 머리를 숙이고 기생 노릇을 할망정 그는 여느 기생으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는 나이가 스무남은 살이 되자 울며 그의 정지(情地)를 관가에 하소연했다. 관가에서 가금히 여겨서 기안에서 그이 이름을 뽑아서 다시금 양가로 돌렸다. 만덕은 비록 살림살이를 차려서 탐라의 사내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 않았다.

그는 재산 늘이는 데에 가장 재능이 있어서 물가의 높고 낮음을 잘 짐작하여 내들이를 했다. 그런지 몇 십년 우리 임금 십구년 을묘에 탐라에 큰 흉년이 들어 백성의 죽은 시신이 더미로 쌓였다. 임금이 곡식을 배에 싣고 가서 구제하기를 명령했다. 바닷길 팔백리에 바람 편에 오가는 짐대가 북처럼 재빨랐으나 오히려 맞지 못했다.

이에 만덕이 천금을 희사하여 쌀을 물에서 사들였다. 모든 고을의 사공들이 때맞춰 이르면 만덕은 그 중 십분의 일을 빌어다가 그의 친족을 살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가에 싣렸다. 그리하여 부황(浮黃) 난 자가 그 소문을 듣고 관가 뜰에 모여들기를 마치 구름 같았다. 관가에서는 그 완급을 조정하여 나누어 주었다. 그들 남녀는 모두 만덕의 은혜를 찬송하여,

“우리들을 살려 준 이는 만덕이여.”

했다. 구제가 끝난 뒤에 목사가 그 일을 조정에 올렸다. 임금이 기이하게 여겨서,

“만덕이 만일 소원이 있다면 쉽고 어려움을 가리지 않고 특별히 돌보아 주겠다.”

27) 유재건, 『이향견문록』,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민음사, 1997, pp.238~241. ;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71, pp.25~29.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p.433~437. ; 이가원 교주, 『이조한문소설선』, 교문사, 1984, pp.137~142. ; 김봉옥,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1989, pp.82~87.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7, pp.136~140.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p.612. ; 김건우 편역, 『나는 당당하게 살았다』, 문자향, 2003, pp.32~35.

하고 회유했다. 목사는 그제야 만덕을 불러서 임금의 말씀대로,

“넌 무슨 소원이 있느냐.”

하고 물었다. 만덕은,

“별다른 소원은 없습니다만 다만 한 번 서울에 가서 상감님의 제신 곳을 바라보고, 이내 금강산에 들어가 일만이천봉을 구경한다면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했다. 대체 탐라의 여인은 바다를 건너서 물에 닿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는 곧 국법이 었다. 목사가 또 그의 소원을 상주하였더니, 임금이 명령을 내려 그의 소원대로 좇아서 관가에서 노수(路需)와 역마를 주고, 음식을 번갈아서 제공케 했다.

만덕은 드디어 배를 타고 만경의 푸른 바다를 건너서 병진년 가을에 서울에 들어와서 채상국을 한두 번 만났다. 상국은 그 사실을 임금께 여쭙어서 선혜청에 명령하여 달마다 식량을 대주었다. 그런지 며칠 만에 그로써 내의원(內醫院) 의녀를 삼아서 모든 의녀의 반수(班首)에 두었다. 만덕은 전례(前例)에 의하여 내궐(內闕)문 안에 들어가 문안을 드렸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여시(女侍)로 하여금 말씀을 내렸다.

“네, 한 개의 여자로서 의기(義氣)를 내어서 주린 백성 천 여 명을 구제했으니 가록한 일이다.”

그리고 상사(賞賜)한 것이 많았다. 그런지 반년 만인 정사년 삼월에 금강산에 들어가 만폭동(萬瀑洞)·중향성(衆香城)의 기이한 경치를 다 구경할 제, 금불(金佛)을 만나서는 반드시 절하고 공양 드려 그 정성을 극진히 했다. 이는 대체로 불법이 탐라국에는 들어오지 않은 까닭에 만덕이 나이가 쉰 여덟이었으나 이제 처음 절과 부처를 구경했던 것이다.

그는 마침내 안문재(雁門嶺)를 넘어서 유점사(楡岾寺)를 거쳐 고성(高城)으로 내려가 삼일포(三日浦)에서 배를 타고 통천(通川) 총석정(叢石亭)에 올라 천하의 기이한 구경을 극진히 한뒤로 서울로 다시금 돌아와서 며칠을 머무르고 장차 고국으로 돌아갈 제, 내궐에 들어가서 물러감을 고했다. 왕비와 궁에서 각기 앞서와 같이 상을 내렸다.

이때엔 만덕의 이름이 서울 안에 가득하여 공·경·대부·사의 계층을 헤이지 않고 한 번 만덕의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는 자 없었다.

만덕이 떠날 때에 채상국을 보고 목메인 소리로,

“이승에선 다시금 대감의 얼굴을 뵈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이내 산연(潸然)히 눈물을 내렸다.

채상국은,

“옛날 진시황과 한무제는 모두들 ‘해외에 삼신산이 있다’ 하였고, 또 세상에서 이르기를 ‘우리 나라의 한라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영주산이요, 금강산은 곧 그들이 이른바 봉래산이 아닌가. 넌 이미 탐라에 자라나서 한라산에 올라 백록담의 물을 읊고, 이제 또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였으니, 이는 삼신산 중에서 그 둘은 벌써 너에게 점령되었지

않은가. 온 천하 수많은 사내 중에서 이런 복을 누린 자가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직을 당해서 도리어 아녀자의 가련한 태도를 짓는 것은 무슨 까닭이냐.” 하고 위안해 주었다. 그리고 그 일을 서술하여 만덕전을 써서 한 번 웃으며 그에게 주었다. 이때는 우리 임금 이십일년 정사 하지였다. 번암 채상국의 나이가 일흔 여덟에 이 글을 충간의담헌(忠肝義膽軒)에서 쓰다.²⁸⁾

이재체의 『오원집』에 수록된 〈만덕전〉은 채제공의 〈만덕전〉과는 또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테면 만덕이 처음 서울에 갔을 때 윤상국(尹相國)의 첩이 사는 처소에 머물렀었는데 한 달쯤 지나 만덕이 돈 천오백을 싸들고 첩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나 사양했다거나 이에 따라 윤상국 첩의 노복들이 불평을 했다는 이야기는 채제공의 〈만덕전〉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재체의 〈만덕전〉은 이후 김건우 편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에도 수록되고 있다.²⁹⁾

만덕은 전라도 제주목(濟州牧)의 과부이다. 머나먼 남해에 있는 제주는 옛날의 탐라국이다. 정조 갑인년(1794)과 을묘년(1795)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제주도에도 거둑

- 28) 萬德者 姓金 耽羅良家女也 幼失母 無所歸依 托妓女爲生 稍長 官府籍萬德名妓案 萬德雖屈首妓於役 其自待不以妓也 年二十餘 以其情泣訴於官 官矜之 除妓案 復歸之良 萬德雖家居乎 庸奴耽羅丈夫 不迎夫 其才長於殖貨 能時物之貴賤 以廢以居 至數十年 頗以積著名 聖上十九年乙卯 耽羅大饑 民相枕死 上命般粟往哺 鯨海八百里 風檣來往如梭 猶有未及時者 於是萬德 捐千金 買米陸地 諸郡縣棹夫以時至 萬德取十之一 以活親族 其餘盡輸之官 浮黃者聞之 集官庭如雲 官劑其緩急 分與之有差 南若女 出而頌萬德之恩 咸以爲活我者萬德 賑訖 牧臣上其事于朝 上大奇之 回諭曰 萬德如有所願 無問難與易 特施之 牧臣招萬德 以上諭諭之曰 若有所願 萬德對曰 無所願 願一入京都 瞻望聖人在處 仍入金剛山 萬二千峯 死無恨矣 蓋耽羅女人之禁 不得越海而陸 國法也 牧臣又以其願上 上命如其願 官給鋪馬 遞供饋 萬德一帆踰雲海萬頃 以丙辰秋 入京師 一再見蔡相國 相國以其狀白上 命宣惠廳 月給糧 居數日 命爲內醫院醫女 俾居諸醫女班首 萬德依例 詣內閣門問安 殿宮各以女侍傳教曰 爾以一女子 出義氣 救饑餓千百名 奇哉 賞賜甚厚 居半載 用丁巳暮春 入金剛山 歷探萬瀑衆香奇勝 遇金佛輒頂禮 供養盡其省 蓋佛法不入耽羅國 萬德時年五十八 始見有梵宇佛像也 卒乃踰雁門嶺 由榆岾下高城 泛舟三日浦 登通川之叢石亭 以盡天下瑰觀 然後還入京 留若干日 將歸故國 詣內院 告以歸 殿宮皆賞賜如前 當是時 萬德名滿王城 公卿大夫士 無不願一見萬德面 萬德臨行 辭蔡相國 哽咽曰 此生不可復瞻相公顏貌 仍潸然泣下 相國曰 秦皇漢武 皆稱 海外有三神山 世言 我國之漢拏 卽所謂瀛洲 金剛卽所謂蓬萊 若生長耽羅 登漢拏 剌白鹿潭水 今又踏遍金剛 三神之中 其二皆爲若所句攬 天下之億兆男子 有能是者否 今臨別 乃反有兒女子刺刺態 何也 於是 叙其事爲萬德傳 笑而與之 聖上二十一年丁巳夏至日 樊巖蔡相國七十八 書于忠肝義膽軒(채제공, 『번암집』 권55, 傳)

- 29) 김건우 편역, 앞의 책, pp.35~36.

기근이 들어 조정에서 배로 곡식을 실어다가 구휼하였지만, 굶어 죽는 시체가 이어졌다. 만덕은 수백 섬의 곡식을 저축하였는데, 이때 곡식을 풀어서 구휼하여 목숨을 구한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 일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조정에서 탐라 목사에게 만덕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만덕은 '다른 소원은 없지만, 한 번 궁궐에 가서 임금님의 용안을 우러러 뵈고, 금강산에 들어가 비로봉(毗盧峯, 금강산의 최고봉) 정상에 올라 일만이천 봉을 모두 구경한 뒤에 돌아오는 것이라'하자, 정조는 이를 기특하게 여겼다.

병진년(1796) 가을, 만덕에게 역마를 타고 올라오게 하여 대궐에 와서 내의원에서 하교를 기다리게 하였는데, 소관(小官)으로 대접하였다. 이듬해 정사년(1797) 봄에 음식과 역마를 제공하여 금강산을 유람하고 몇 달 후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로 인해 만덕의 이름이 사방에 알려지게 되었다. 만덕이 이윽고 제주로 돌아가겠다고 청하니, 또 역마를 타고 내려가 제주로 돌아가게 하였다.

처음 만덕이 서울에 왔을 적에 윤상국(尹相國)의 소부(小婦)가 사는 처소에서 묵었다. 한 달쯤 지나 만덕이 돈 천오백을 싸들고 가서 소부에게 감사의 마음이나마 전하려고 하였다.

“이제 거처를 정했습니다. 댁에서 고맙게도 오랫동안 편안히 머물렀기에 성의나마 표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답을 바래서 대접했겠나?”

소부가 웃으며 이렇게 말하니, 만덕이 그냥 돈을 싸 가지고 갔다.

며칠 뒤에 만덕이 길을 지나다가 소부에게 들러 문안인사를 하자, 소부가 조용히 만덕에게 말하였다.

“우리집 노복들이 ‘만덕이 돈을 싸들고 왔는데 아씨께서 사양하였다고 하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들과 온종일 즐기며 돈을 다 써버려야 하잖아. 누가 만덕을 여자 의협이라 하는가?’ 하였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지요. 더구나 돈 천여 폐미가 밥 한 그릇에 비길 바이겠습니까.”

서울의 악소배 중에 만덕이 재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접근하려는 자가 있었다. 만덕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내 나이 쉰 살이다. 저들은 내 얼굴을 이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재물이 탐나서 그런 것이다. 굶주린 사람들을 구휼하기에도 부족한데, 어느 겨를에 탕자를 살찌우겠는가.”³⁰⁾

30) 万德 全羅道濟州牧寡女也 州在極南海中 古毛羅國也 今上甲寅乙卯 歲大侵 州民荐饑 朝家雖船粟就哺 餓殍相枕 万德預居積數百斛 至是出而賑之 所全活甚多 事聞于朝 命下毛羅守臣 問萬德所欲願 萬德對 無所願 願一登天陛 仰觀聖人 因入金剛 登毗盧絕頂 周覽万二千峰而歸 上奇

심노승의 『계섬전』 후미에도 〈만덕전〉이 붙어 있는데, 만덕을 부정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이는 심노승이 늙은 기생 계섬의 불우한 인생 유전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위로하기 지으면서 그녀와 상반된 인물로 만덕을 거론하기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여기에는 노론이었던 심노승이 남인의 영수로 정조의 지우를 입었던 인물인 채제공의 〈만덕전〉을 겨냥해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은 일정 정도 당파적 입장이 개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왕과 정승을 속인 김만덕의 행적을 적으면서 그런 위선도 가리지 못하고 실(實)에 맞지 않는 명(名)까지 주는 이 세상에 강개한 비판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³¹⁾ 심노승의 〈만덕전〉은 다음과 같다.³²⁾

지난해(1976년) 제주 기녀 만덕이 곡식을 내어 진휼하니 조정에서는 그녀를 예국(隸局)의 우두머리 종으로 삼고 금강산 유람까지 시켜 주면서 말과 음식을 제공하였으며, 조정의 학사들로 하여금 그의 전까지 짓도록 명하여 규장각의 여러 학사들을 시험하였다. 지난날 내가 제주에 있을 때 만덕의 얘기를 상세하게 들었다. 만덕은 품성이 음흉하고 인색해 돈을 보고 따랐다가 돈이 다하면 떠나는데, 그 남자가 입은 바지저고리까지 빼앗으니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는 남자의 바지저고리가 수백 벌이 되었다. 매번 쪽 늘어놓고 햇볕에 말릴 때면, 군(郡)의 기녀들조차도 침을 뱉고 욕하였다. 육지에서 온 상인이 만덕으로 인해 패가망신하는 이가 잇달았더니 이리하여 그녀는 제주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것이다. 그 형제 가운데 음식을 구하는 이가 있었는데 돌아보지도 아니하다가 도에 기근이 들자 곡식을 바치고는 서울과 금강산 구경을 원한 것인데, 그녀의 말이 웅대하여 볼 만하다고 여겨 여러 학사들은 전을 지어 많이 칭송하였다.

내가 「계섬전」을 짓고 나서 다시 만덕의 일을 이와 같이 덧붙인다. 무릇 세상의 명(名)과 실(實)이 어긋나는 것이 이러한 것이 많음을 혼자 슬퍼하니 계섬의 이른바

之 丙辰秋 命乘傳詣闕 待教內醫院 視斗食 翌年丁巳春 給廚傳 遊金剛 凡數易月 還到京師 於是 萬德名聞四方矣 已而乞歸 又乘傳還毛羅 初萬德入京師 客尹相國小婦所 月餘 以錢千五百往謝曰 今則定館他所 願受惠宅上 久矣 敢布鄙誠 小婦笑曰 吾豈食女望報邪 萬德因齎去 後值過候小婦 小婦從容言曰 聞門下僕使輩謂女既齎錢入門 小君固不受 獨不可與吾曹一日虞飲罷也 誰謂萬德女義俠 萬德謝曰 善用財者 簞食亦能濟饑人命 否則糞土也 錢千餘 又豈特簞食也哉 京師惡少 聞萬德財雄 欲褻狎之 萬德曰 吾年五十餘矣 彼非艷我貌也 艷我財也 吾方且顛連之 周恤不贍 奚暇肥蕩子乎 拒絕之(오재채, 『오원집』 〈만덕전〉)

31) 심노승, 『눈물이란 무엇인가』, 김영진 옮김, 태학사, 2001, p.91.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6, pp.44~46.

32) 심노승, 앞의 책, pp.88~89.

만나고 만나지 못하고 하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³³⁾

조수삼의 <추재기이>의 <만덕>도 유제건의 『이향전문록』의 <만덕>처럼 시를 짓기에 앞서 짚막하게 그 시를 짓는데 따른 인물전으로서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은 채제공의 <만덕전>의 축소판이다.³⁴⁾

만덕은 제주 기생이다. 집안에 재산이 많았으며 한 쪽 눈에 눈동자가 들어있다. 정조 임자년(1792)에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만덕은 수천 석의 곡식과 수천 폐미의 돈을 내어 일읍의 백성을 진휼하여 살려내었다. 임금께서 그것을 매우 가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소원을 묻게 하였다. 대답하기를,

“저는 여자이며 천인이옵니다. 다른 소원은 없사옵고 단지 한 번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한 번 보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다. 마침내 역참에 명하여 말을 내어 상경케 하고는 약원 내의녀의 행수로 귀속시켰다. 인하여 노자를 주어 금강산에 가서 구경케 하였다.

정비석의 『명기열전』에는 ‘제21화 제주기 만덕’이라는 제목으로 채제공의 <만덕전>에 대해서 해설하고 있으며, ‘만덕의 사적을 찾아서’에서 정비석이 만덕기념사업회와 무덤을 직접 찾았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이어서 ‘소녀 만덕, 한량들과의 사냥, 자기 손으로 엮은 머리, 마음에 드는 남자 고선희, 명기 물산객주, 극심한 흉년, 전채산을 내어놓다, 만덕의 소원, 행수내의녀 만덕, 만덕 할머니와 채제공, 만덕 할머니의 여생’ 등의 소재목으로 만덕의 이야기를 작품화하고 있다.³⁵⁾

김태능은 김만덕기념사업회에서 <김만덕전>을 간행하였는데, 머리말에 이어 ‘불우한 소녀 시절, 기생시절, 양녀로 복귀, 식산에 전력, 정조 시대의 흉년 상황, 구호곡을

33) 前年耽羅妓萬德出粟助賑 朝廷驛召隸局婢首 遊金剛往來 乘驛官饋 命題敍傳 試閣中諸學士 嚮余在島中 聞德事頗祥 性凶恪 視金從之 金盡而去 輒奪其衣袴 所贖男子衣袴累百數 每纒纒出點晒 郡妓唾罵之 北商以德敗者相續 德富甲一島 兄弟有丐食者不顧 至是 島飢納穀 願至京遊金剛 謂其言落落可觀 諸學士敍傳多稱之 余既爲桂織傳 又附見萬德事如此 竊悲夫世之名實相舛者多此類 若織所謂遇不遇又何足道也(심노승, 『효전산고』 권7, <계섬전>)

34) 萬德 濟州妓也 家貲鉅萬 一雙眼重瞳 正宗壬子 州大歉 萬德出數千斛穀 數千緡錢 賑活一邑之民 上大嘉之 使問其所願 曰 萬德 女子賤人也 無他願 惟願一瞻天陛 一見金剛 遂命騎駟 上京 屬之藥院內醫女行首 仍令廚傳 往遊金剛(조수삼, 『추재집』, 보진재, 1940, p.577.)

35) 정비석,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pp.239~335.

기증, 왕의 수이지은(殊異之恩)을 입음, 만도(滿都)의 청송과 만덕전 저술' 등의 소제목으로 김만덕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³⁶⁾ 이는 이후 간행된 김태능의 『제주도사논고』에도 재수록된다.³⁷⁾

이전문의 『조선의 상공인 열전 부자되는 이야기』에도 '제주의 첫 여상인·만덕'이 제목하에 만덕에 대한 인물전이 수록되었다. 대화체를 가미한 이 인물전은 '퇴기의 수양딸로 들어가, 내들이에 뛰어난 재능 발휘, 이문 남기면서도 섬사람 도와, 신임 사또 만덕과 백성과 살릴 의논, 탐라의 여인 육지 못 오는 국법 깨고, 제주에 돌아온 후 장삿길 끊어' 등의 소제목 밑에 만덕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내들이에 뛰어난 재능 발휘' 대목에서는 김만덕의 상술을 연암 박지원의 <허생전>의 허생과 비유하기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끝부분에서는 채제공의 <만덕전>이 지어진 뒤로 만덕이 몇 해를 더 살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⁸⁾

양중해는 『제주여인상』에서 '김만덕의 자선'이라는 제목으로 김만덕의 일대기를 작품화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채제공의 <만덕전>과 이가환의 <만덕에게 주다>를 번역문과 함께 원문까지 수록하고 있다.³⁹⁾

2) 한시류

이가환의 『금대시문초』상에는 만덕을 전송하는 시인 <송만덕귀탐라>가 수록되었다. 이 한시는 이후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답수계의 『증보탐라지』, 김봉옥의 『구원의 여상 김만덕』과 『모충사기』, 김전우 편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이덕일의 『여인열전』 등에도 수록되었다.⁴⁰⁾ 다음은 김전우 편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에 수록된 시이다.⁴¹⁾

36)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71.

37)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32, pp.406~430.

38) 이전문, 『조선의 상공인 열전 부자되는 이야기』, 조선일보사, 1989, pp.119~126.

39)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pp.108~161.

40)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P.86. ; 답수계,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4, P.358. ; 김봉옥,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1989, pp. 78~79.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pp.132~133. ; 이덕일, 『여인열전』, 김영사, 2003, p.464.

만덕은 제주의 훌륭한 여인
 예순 나이 마흔쯤으로 보이구료,
 평생 모은 돈으로 쌀 팔아 백성을 구제하고
 한 번 바다를 건너 궁궐에 조회하였네.
 평생 소원 금강산 유람
 안개 낀 동북 사이에 있도다.
 임금님께서 빠른 역마를 하사하시니
 천 리에 뻗힌 영광이 관동을 진동시키네.
 높이 올라 멀리 장관을 만끽하고
 손을 흔들며 제주로 돌아가네.
 탐라는 아득한 고부랑부터 있었지만
 제주 여인으로 처음 서울을 관광하였지.
 우레 같이 왔다가 고니처럼 날아가니
 높은 풍채 오래 머물러 세상을 맑게 하지.
 인생살이 이처럼 이름을 드날리니
 옛날 여회청대를 어찌 부러워하리.

문명이 중국에까지 떨쳤던 조정 박제라도 만덕의 숙소에 찾아와 즉석에서 녀 수의 한시를 적어주었다. 이는 정비석의 『명기열전』에도 인용 수록되었다.⁴²⁾

넓은 천지 바다 밖에는 못나가니
 넓다 한들 뉘라서 시집 장가 끝내랴.
 제주라 섬나라 이웃은 일본
 사또는 천 년 세월에 굴만 바쳐왔네.

굴밭 깊은 숲속에 태어난 여자의 몸

- 41) 萬德瀛洲之奇女 六十顏如四十許 千金糴米救黔首 一航浮海朝紫纓 但願一見金剛山 山在東北烟霧間 至尊卿肯賜飛驒 千里光輝動江關 登高望遠壯心目 飄然揮手還海曲 耽羅遠自高夫良 女子今始觀上國 來如雷喧逝鵲攀 長留古風灑寰宇 人生立名有如此 女懷清臺安足數(김건우 편역, 앞의 책, p.37.)
- 42) 大寶海外頭不出 五嶽誰能昏嫁畢 毛羅爲島界扶桑 星主千年僅貢橘 橘林深處女人身 意氣南極無饑民 爵之不可問所願 願得萬二千峰看 翠袖雲髮一帆峭 孤南所照回天笑 催乘駟騎向煙霞 佛日仙風環佩耀 眞覺新羅一念通 異相巾幗符重瞳 從知破浪乘風志 不是桑弧蓬矢中(정비석, 앞의 책, pp.330~331.)

의기는 드높아 주린 백성 없었네.
벼슬은 줄 수 없어 소원을 물으니
만이천 봉 금강산 보고 싶다네.

의젓이 다듬은 모습에 돛대도 높이
남쪽별은 빛나 임금님도 기쁨을
바빠 말에 올라 금강산으로 향하니
햇빛도 바람결에 노리개에 찬란타.

정녕 깨달았으리 신라와 마음은 하나
생김도 달라 여자몸 눈동자가 겹이라.
이제사 알겠노라 바다 건너 온 뜻은
잣다란 세상일에 있지 아니했음을.

그런가하면 유재건의 『이향견문록』에는 만덕이 서울에 갔을 때 기생 홍도가 지은 한시가 있다. 원래 출전은 『범곡기문(凡谷記聞)』이며, 김건우 편역의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에 수록된 시이다.⁴³⁾

여의(女醫) 행수(行首)인 탐라 기녀가
만 리 물결에 바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네.
또 금강산 깊은 곳을 향해가니
향기로운 이름 교방(敎坊)에 남으리.

조수삼의 <추재기이>에도 만덕에 대한 한시가 수록되었는데, 특이한 것은 앞서의 한시들과는 달리 짤막한 <만덕>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⁴⁴⁾

회청대를 ул나의 고향인 제주도에 지어 놓고
곡식을 쌓은 것이 산처럼 높아 마곡 고을에 쌓았네.

43 女醫行首耽羅妓 萬里層溟不畏風 又向金剛山裡去 香名留在敎坊中(유재건, “이향견문록”, 실시 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민음사, 1997, p. 241. ; 김건우 편역, 앞의 책, pp.37~38.)

44 懷淸臺築乙那鄉 積粟山高馬谷量 賦汝重瞳眞不負 朝瞻玉階暮金剛(조수삼, 『추재집』, 보진재, 1940, p.578.)

네게 겹눈동자를 내어주신 것이 진실로 저버리지 않아
아침에는 궁궐을 보고 저녁에는 금강산도 구경하였네.

3) 전설류

진성기의 『남국의 전설』과 『제주도전설』에서는 '제5부 역사적 설화'로 '7. 만덕할망 [김만덕 할머니]'이라는 제목의 전설이 수록되어 있다. 이는 1958년 7월 제주시 용담동에서 제보자 고부길로부터 채록된 것으로 만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⁴⁵⁾

만덕의 본은 김해이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의지할 곳 없이 고생하다가 장성하여서는 교방(敎坊)에 몸 붙이고 살았는데, 본래 자비심이 두터웠고 근면 절약하여 많은 재산을 모았다. 그래서 갑인년(조선 정조 18년) 흉년에는 아사 지경에 이른 수많은 제주 빈민을 구제하기도 하였고 또 미리 곡식을 사들였다가 영세민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이런 일로 해서 당시의 제주 목사 이우현은 만덕 할망의 마음씨를 높이 칭송하고 이 사실을 임금님께 여쭙었다. 임금님이 들으시고 지극히 아리따게 여겨 목사로 하여금 할망의 소원을 묻게 하였다.

“남편도 자식도 없는 몸이라 별소원은 없습니다. 다만 조선의 명승인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입니다.”

임금님은 할망의 겸손에 더욱 감탄하였다. 임금님은 여러 편의와 안내자를 정하여 주어 할머니로 하여금 금강산을 두루 구경하게 하였다.

만덕 할망이 유람에서 돌아오자 동네 사람들은 별장을 지어 주었고, 영의정 채제공(蔡濟恭)이 만덕 할망의 전을 지어 지금까지 전해온다.

4) 드라마류

MBC에서는 지난 1976년 김만덕의 생애를 다룬 고두심 주연의 흑백 드라마 〈정화〉가 방영되었고, 2003년에는 EBS 역사극장 1부와 2부를 통해 김만덕의 삶이 비쳐지기도 했다.

45)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 p.236. : 진성기, 『제주도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2, p.265.

특히 EBS 역사극장의 <의녀 김만덕>은 안금림 극본, 김유열 연출로 김만덕 역에는 탈렌트 임정옥이 맡고 있다. 2003년 3월 21일 방영된 1부 '여자가 아닌 인간의 길'에서는 만덕의 기녀로서의 삶과 객주집 주인으로서 녹용 상거래 및 순무어사 이도원과의 사랑 등을 그리고 있으며, 2003년 3월 28일 방영된 2부 '진정한 부자의 길'에서는 제주상권을 둘러싼 갈등, 제주 백성 구휼, 정조 임금의 알현, 영의정 채제공과의 만남 등을 묘사하고 있다. 전현직 제주문화원장 양중해와 홍순만의 자문으로 만들어진 이 드라마에서는 김만덕을 조선 여성 사업가 내지는 거상 중의 거상으로 결론 짓고 있다.

5) 목판 편액류

1840년(현종 6년) 대정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는 만덕의 행적을 듣고 감동하여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번진다는 뜻으로 '恩光衍世'라 대서(大書)하고 그 옆으로 '김종주(金鍾周)의 할머니가 제주의 큰 흉년을 구휼하니 임금님이 특별하신 은혜를 입어 금강산을 구경하였으며 벼슬아치들이 모두 전기와 시가로 이를 노래하였다. 이는 고금에 드문 일이므로 이 편액을 써 보내어 그 집안을 표하는 바이다'고 기록하고 있다.⁴⁶⁾

6) 영정류

김만덕의 영정은 김만덕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으므로 다년간 제주 여성의 얼굴 형에 대하여 연구해왔다는 고 홍정표(洪貞杓) 선생의 자문을 받고 의상은 고 석주선(石宙善) 선생의 고증을 받으며 상문(祥文) 화백에 의뢰하여 영정을 제작하여 만덕관에 모셨다.⁴⁷⁾

46) 한치문, 앞의 책, p.94. ; 부영성, 앞의 책, p.121. ; 김봉옥, 『구언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1989, pp.81~82.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pp.135~136. ; 김찬흠 편저, 앞의 책, p.96.

47)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p.640.

7) 노래류

〈김만덕 노래〉는 양중해 전 제주대 교수가 작사하고, 고봉식 전 제주도교육감이 작곡하였는데, 그 가사는 다음과 같다.⁴⁸⁾

1. 바람부는 벼랑의 바위 틈에서
외로이 싹터나온 한 떨기 꽃은
우거진 잡초 속에 묻혀 있어도
향기는 온누리에 가득하여라
아 그 이름 만덕 아가씨
착하고 아름다운 만덕 아가씨
2. 누리가 가물어서 목이 마르고
사람마다 굶주려 허덕일 때에
굶주린 백성들을 구해주신 분
만세에 그 은덕은 길이 빛나리
아 그 이름 만덕 할머니
의롭고 자애로운 만덕 할머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8) 기념탑류

김만덕의 무덤은 1977년 1월 도민의 이름으로 70니7루에서 제주시 건입동 사라봉 기슭의 묘충사로 이묘되었다. 묘충사 경내에는 세 개의 탑이 있는데 두 개의 탑은 항일열사 조봉호 등을 기리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김만덕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김만덕의 기념탑에는 ‘의녀반수 김만덕 의인의 묘’라고 적혀 있다. 또한 제주도에서는 만덕상을 제정, 해마다 한라문화제 때 모범여인을 선정해 수상함으로써 은덕을 기리고 있다.

48) 위의 책, pp.641~642.

4. 만덕 이야기의 고찰

김만덕에 대한 고찰은 크게 두 가지 각도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책 속에서 김만덕의 이야기를 다루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격적인 논문 속에서 언급하는 경우이다. 이 중 전자의 경우는 보통 제주의 통사를 정리하면서 이루어졌으며, 후자의 경우는 제주의 여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1) 책 속에서의 고찰

김태능은 『김만덕전』에서 자신이 직접 기록한 〈김만덕전〉 외에도 채제공의 〈만덕전〉을 함께 소개하고 있으며, 김만덕의 가계와 추사 김정희가 표창 편액을 기증한 내용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⁴⁹⁾

김종업은 『탐라문화사』에서 '역사적 측면에서 본 탐라정신'에서 '제주도민의 삼재에 대한 극복'항에서 의녀 김만덕은 사재를 털어 구호미를 도입하여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휼한 것이 너무나 유명하다고 기록하고 있다.⁵⁰⁾

이규태는 『역사에 소문나지 않은 여인』에서 '제주기생 만덕'이라는 제목하에 '양반 출신인 기생 만덕, 돈을 많이 벌어서 제주 양민들을 살리다, 만덕의 후덕한 마음에 임금도 감탄' 등의 소제목으로 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여성 가운데서도 가장 천민층에 드는 기적에 올랐던 신분으로서 이토록 인간적 승리를 거둔 이면에 부각되는 신선하고 활달한 휴머니즘과 레지스탕티즘이 손이 시리게 와 닿는다고 피력하고 있다.⁵¹⁾

김봉옥은 『제주통사』, 『증보제주통사』, 『구원의 여상 김만덕』, 『모충사기』에서 김만덕에 대해 비교적 소상하게 언급하고 있다. '조선 때의 제주'항에서 '김만덕 진휼'

49)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71. :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pp.406~437.

50) 김종업, 『탐라문화사』, 조약돌, 1986, p. 225.

51) 이규태, 『역사에 소문나지 않은 여인』, 기린원, 1987, pp.104~109.

이라는 제목으로 김만덕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정리하는 차원의 연구로서 만덕이 자라난 환경, 기생이 됨, 양녀로의 복귀, 제주의 흉년, 기민 구출에 나섬, 임금님의 특별한 은혜, 장안 화제가 된 만덕, 이가환의 송별시, 김정희의 써준 편액, 모충사로 묘를 옮긴 내용들을 역사적 사실로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⁵²⁾

이순구는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1』에서 김만덕을 '의지의 자선사업가'로 결론짓고 여성의 사회활동조차 드문 시대에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활동한 특기할 만한 여성이며, 상업의 원리를 잘 파악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였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떠나 나라를 위해 재산을 헌납한 요즘도 보기 드문 자선사업가이며 성공한 사업가로서 당당히 자리매김되어야 할 인물이라고 언급하고 있다.⁵³⁾

이덕일은 『여인열전』에서 김만덕을 '전 재산을 사회사업에 바친 조선말 의녀'로 정의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몸을 던져 유통에 뛰어들어 재산을 모으고 그 재산을 사회에 회사한 인물로 금강산을 유람하고 재제공은 <만덕전>을 지어주었는가 하면 이가환은 송시로 그녀를 위로했다고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조실록』의 기록에 비추어 만덕이 실제 기적에서 삭제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⁵⁴⁾

조혜란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에서 '제주에서 금강산을 꿈꾼 여인'으로 김만덕을 조명하고 있다. '우국지사'와 나란히, 자기 운명의 개척자, 크게 벌여 크게 쓴 진정한 큰 손, 대궐 구경과 금강산 구경을 한 제주 여성, 살아서 공적 명예를 누린 조선 여성, 자기 삶의 경영자'로 김만덕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김만덕을 조선 시대의 성공한 여성 CEO로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조선 시대 여성으로 대단한 사업 수완을 발휘한 만덕은 오늘날 여성에게 요구되는 전통적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김만덕의 성공은 자신이 애써 모은 물질을 다른 이들을 위해 대가 없이 나누어주었다는 데서 비롯되며, 더 나아가 그녀의 성공은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녀의 성공은 자

52)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87, pp.166~170 ; 김봉옥,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 1989. ;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9. ; 김봉옥, 『증보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pp.186~189.

53) 이순구, 앞의 글, p.137.

54) 이덕일, 앞의 책, pp.453~469.

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기회를 무형의 자산을 위해 멋있게 투자할 수 있었다는 데서 얻어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⁵⁵⁾

2) 논문 속에서의 고찰

김만덕에 관한 연구 논문은 크게 두 가지 흐름에서 전개되어 왔다. 하나는 만덕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연구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만덕을 다른 인물이나 작품과 비교하면서 부분적으로 거론한 경우이다. 전자의 연구로는 이신복, 김준형, 김경애, 현승환의 연구가 해당되며, 후자의 연구로는 정미숙, 이승복, 최준하, 김영진, 소재영, 윤치부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먼저 이신복은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에서 작품 내용의 순차구조와 새로운 여인상의 제시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내용의 순차구조란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첫째 단락과 재물을 흠어 굶어죽는 백성을 구휼한 두 번째 단락과 두 가지 소원이 제시되어 이를 이루는 셋째 단락을 이루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여인상의 제시에서는 운명의 개척과 혼인의 거부와 빈민 구제와 대궐과 금강산 구경의 두 가지 소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⁵⁶⁾

김준형은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에서 만덕의 생애와 〈만덕전〉의 입전 배경과 〈만덕 이야기〉의 존재 양상을 살피고 있다. 특히 생애에서 박용익이 “만덕”에서⁵⁷⁾ 언급한 만덕이 19세 때 순무어사(巡撫御使) 이도원(李度遠)과의 반년 동안의 인연은 김만덕(1739~1812)과 이도원(1634~?)의 생몰 연대를 고려할 때 사실이 아닌 듯하다고 주장한다. 이어 지배 이데올로기 강화로서의 채제공의 〈만덕전〉, 지배층에 대한 풍자로서의 심노승의 『계섬전』 소재 〈만덕 이야기〉, 이야기의 기호로써 수용되는 유재건의 『이향전문록』의 〈만덕 이야기〉와 조수삼의 〈추재기이〉의 〈만덕 이야기〉, 구비문학으로서의 〈만덕 이야기〉 등의 존재양상과 전승의미를 밝히고 있다.⁵⁸⁾

55) 조혜란, “제주에서 금강산을 꿈꾼 여인”,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pp.193~209.

56)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12, 단국한문학회, 1994, pp.633~639.

57) 박용익, 앞의 글, p.50.

58)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pp.1~26.

김경애는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에서 만덕을 전통사회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로 태어나 일찍 가족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홀로 어린 나이 때부터 전통사회가 규정한 천대받는 여성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생존하고 또 성공하여 유교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반했던 자신의 성공이 주는 명성과 안일한 행복에 대한 집착을 가족의 명예를 위해서 버리는 결단을 내렸으며, 유교 전통사회가 요구하는 정절이데올로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고 순응하면서 다른 한편 여성의 역할을 뛰어넘음으로써 유교 전통사회의 중심으로 편입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즉 만덕을 여성인 자신이 옥죄었던 가족과 시대와 불화하거나 등 돌리지 않고 현명하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면서 시대의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았기에 여성주의를 신봉하는 현대 여성에게 삶의 사표로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⁵⁹⁾

현승환은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에서 1단계로 최초 기록인 채제공의 <만덕전>을 유재건이 『이향전문록』에 수록하고, 김석익이 『탐라기년』에 요약 수록하였으며, 2단계로 채제공의 <만덕전>에 해석을 더하면서 김태능과 한치문의 <김만덕전>이 탄생했으며, 3단계로 소설화한 정비석의 『명기열전』의 <제주기 만덕>이 지어졌는데 이는 부영성, 김봉옥, 양중해, 김찬흡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즉, 김태능의 <김만덕전>이 한치문에 영향을 미쳤고, 한치문은 설화적 요소를 가미하여 새로운 <김만덕전>을 완성했으며, 정비석은 『명기열전』에서 소설로 완성시켰고, 이를 토대로 김봉옥, 양중해의 <김만덕전>이 나오게 되었다고 고찰하고 있다.⁶⁰⁾

다음으로 정미숙은 “채제공과 이옥의 여성전 연구”에서 <만덕전>은 부모를 잃은 상황, 백성에 대한 관의 구휼이 제때에 여유 있게 실시되지 않는 상황, 탐라의 여인이 육지에 가지 못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만덕은 자신의 위기 극복, 신분의 회복과 자유로운 행동의 지향, 자신의 능력 인정과 발휘, 자신의 목표 달성의 순으로 동기를 실현하였다고 말한다. 이러한 동기의 실현은 비록 여성일지라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사회 현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지의 실현이

59) 김경애,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 pp.82~102.

60) 현승환,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 『21세기와 제주사회의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 pp.61~81.

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덕전〉을 주인공의 동기 실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작품은 여성이 입장에서 불리한 현실인식과 이에 대처하는 여성 현실 참여와 그 의지의 실현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⁶¹⁾

이승복은 “번암 채제공의 「전」 연구”에서 직접 체험한 내용으로서의 〈만덕전〉을 고찰하고 있다. 직접 체험한 인물을 입전하였기에 행적 내용을 인과적으로 배열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제재를 취한 경위나 논란은 생략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여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의협(義俠)인 만덕을 통해 당시 도탄에 빠진 민생과 각박한 세정에 대한 권계의 교훈을 주려고 하고 있으며, 흥미 있는 소재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도 많이 내재해 있다고 말하고 있다.⁶²⁾

최준하는 “번암 채제공의 「전」 문학 연구”에서 〈만덕전〉은 사회전반의 다양한 면보다 특히 변해가는 여성상을 절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당시에 유행하기 시작하던 여성계 영웅소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 여성의 능력과 존재를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변천에 의해서 가능해졌던 것이라고 하였다.⁶³⁾

김영진은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에서 〈계섬전〉을 거론하면서 〈계섬전〉 후미에 있는 만덕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다. 심노승이 〈계섬전〉의 끝에 이야기를 부친 것은 채제공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활한 한 기녀의 가식에 임금과 재상이 속고 있는 세태, ‘명과 실조차 어그러지고 있는 현실에 무슨 우(遇)를 바라겠냐’는 강개한 비판을 던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계섬전〉은 창강 김택영이 심노승을 두고 말한 ‘문학이 강개했다’는 평에 가장 부합되는 작품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⁶⁴⁾

소재영은 “제주의 여인상”에서 어릴 적 기녀로 입적되어 자라난 그녀의 성장과정과 훗날 자신이 모은 재화로 수많은 기민들을 구제한 공적을 건주어 보면 참으로 입지전적인 삶을 우러르게 되며, 오늘날 근면하면서도 이웃사랑을 생활화하고 있는 제

61) 정미숙, “채제공과 이옥의 여성전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pp.13~16.

62) 이승복, “번암 채제공의 「전」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pp.28~30.

63) 최준하, “번암 채제공의 「전」 문학 연구”,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회, 1993, pp.309~311.

64) 김영진, 앞의 논문, p45.

주 여성들의 바람직한 한 상이 된다고 말한다.⁶⁵⁾

윤치부는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에서 지순한 여성의 <천덕전>과 진취적 여성의 <만덕전>과 효성과 절애의 여성으로서의 <열녀문씨전>을 비교하고 있다.⁶⁶⁾

5. 맺음말

지금까지 김만덕 이야기의 사실적 기록의 기사화, 인물전·한시·전설·드라마·목판·편액·영정·노래·기념탑 등의 작품화 등과 관련한 전승양상과 책과 논문을 통한 김만덕 고찰의 사적 전개과정을 검토하여 보았다.

김만덕 이야기의 사실적 기록인 기사화는 『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구묘비문>, 『다산시문집』, 남만리의 『탐라지』, 김석익의 『탐라기년』, 김두봉의 『제주도실기』, 담수계의 『탐라지』, 석주명의 『제주도수필』, 한치문의 『탐라실록』, 『제주도지』, 『제주시30년사』, 부영성의 『구좌읍지』, 『북제주군지』, 『제주선현지』, 김찬흡의 『제주사인명사전』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김만덕 이야기의 작품화는 인물전류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채제공의 <만덕전>, 이재체의 <만덕전>, 심노승의 <만덕전>, 유재건의 <만덕>, 조수삼의 <만덕>, 정비석의 <제주기 만덕>, 김태능의 <김만덕전>, 이전문의 <제주의 첫 여상인·만덕>, 양중해의 <김만덕의 자선>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채제공의 <만덕전>과 유재건의 <만덕>은 동일하며, 심노승의 <만덕전>은 유일하게 만덕을 부정적 인물로 그리고 있다. 또한 한시 작품으로써 이가환의 <송만덕환탐라>, 박제가의 한시, 기생 흥도의 한시, 조수삼의 한시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전설로 진성기의 <만덕할망>, 드라마로 MBC의 <정화>와 EBS의 역사극장, 추사 김정희 ‘은광연세’의 목판편액, 상문 화백의 김만덕 영정, 양중해 작시와 고봉식 작곡의 <김만덕 노래>, 기념탑 등이 있다.

김만덕에 대한 고찰은 크게 책 속에서의 연구와 논문 속에서의 연구로 나뉘어진다. 전자의 경우는 김태능의 『김만덕전』, 김종업의 『탐라문화사』, 이규태의 『역사에 소문

65) 소재영, “제주의 여인상”, 『국문학 편답기』, 아에아문화사, 1999, pp.330~336.

66) 윤치부,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 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pp.57~69.

『나지 않은 여인』, 김봉옥의 『제주통사』·『증보 제주통사』·『구원의 여상 김만덕』·『모충사기』, 이순구의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1』, 이덕일의 『여인열전』, 조혜란의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등에서 해제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논문 속에서의 연구는 김만덕 자체만을 연구하는 경우와 제주의 다른 여성과의 비교 속에서의 김만덕 연구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앞서의 경우는 이신복, 김준형, 김경애, 현승환의 연구가 해당되며, 뒤의 경우는 정미숙, 이승복, 최준하, 김영진, 소재영, 윤치부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참고문헌

- 강용삼·김봉옥·김종업·홍순만, 『제주선현지』, 제주도, 1988.
김건우 편역,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2003.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계명출판사, 1986.
김균태 편, 『문집소재전자료집』, 태학사, 1997.
김두봉, 『제주도실기』, (일본 대판)제주도실적연구사, 1932.
김두봉, 『제주도실기』, 제주시우당도서관, 2003.
김봉옥, 『구원의 여인 김만덕』, 제주도, 1989.
김봉옥, 『모충사기』, 제주시, 1987.
김봉옥, 『제주통사』, 도서출판 제주문화, 1990.
김봉옥, 『증보 제주통사』, 도서출판 세림, 2000.
김석익, 『탐라기년』, 1918.
김종업, 『탐라문화사』, 조약돌, 1986.
김찬흠,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사, 2002.
김태능, 『김만덕전』, 김만덕기념사업회, 1971.
김태능,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1982.
남만리 편, 『탐라지』(일본동경대학소장본),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1989.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프린트판), 1954.

- 담수계 편, 『증보탐라지』, 제주문화원, 2004.
- 민족문화추진회, 『정조실록』 22, 민족문화추진회, 1993.
- 박무영·김경미·조혜란,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 부영성, 『구좌읍지』, 태화인쇄사, 1986.
- 박제가, 『북학의』, 이익성 역, 을유문화사, 1971.
- 박제가, 『북학의』, 안대회 옮김, 돌베개, 2003.
- 북제주군, 『북제주군지』, 북제주군, 1987.
- 석주명, 『제주도수필』, 보진재, 1968.
- 승정원 편, 『승정원일기』 93, 국사편찬위원회, 1961.
- 沈老崇, 『孝田散稿』(국립도서관본)
- 沈老崇, 『孝田散稿』(연세대본)
- 심노승, 『눈물이란 무엇인가』, 김영진 옮김, 태학사, 2001.
- 우락기, 『제주도』, 한국지리연구소, 1980.
- 劉在建, 『里鄉見聞錄·壺山外記』, 아세아문화사, 1974.
- 유재건, 『이향견문록』,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역주, 민음사, 1997.
- 이가원 교주, 『이조한문소설선』, 교문사, 1984.
- 李家煥, 『錦帶詩文鈔』(규장각본)
- 이규태, 『역사에 소문나지 않은 여인』, 기린원, 1987.
- 이덕일,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2003.
- 李載采, 『五園集』
- 이전문, 『조선의 상공인 열전 부자 되는 이야기』, 조선일보사, 1989.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관계자료집 : 근세편 문집』, 이화여대 출판부, 1990.
- 정비석, 『명기열전』 6, 신정사, 1981.
- 정약용, 『丁茶山全書上』, 홍익인간사, 1960.
- 정약용, 『국역다산시문집6』, 민족문화추진회, 1997.
- 『정조실록』

- 제주도, 『제주도지』 상, 제주도, 1982.
- 제주도교육위원회, 『탐라문헌집』, 제주도교육위원회, 1976.
-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일상적 삶과 그 자취』, 제주도·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2.
-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하, 제주도·제주사정립사업추진협의회, 2001.
- 제주문화원, 『제주여인상』, 제주문화원, 1998.
- 제주시, 『제주시30년사』, 제주시, 1985.
- 趙秀三, 『秋齋集』, 보진재, 1940.
- 진성기, 『남국의 전설』, 일지사, 1974.
- 진성기, 『제주도 전설』, 도서출판 백록, 1992.
- 蔡濟恭, 『樊巖集』
- 채제공, 『번암집』, 동화출판공사, 1977.
- 『한국명저대전집』, 대양서적, 197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7,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 한치문, 『탐라실록』, 한진문화사, 1973.
-
- 김경애,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
- 김영진, “효전 심노승 문학 연구 : 산문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1996.
-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제주도연구』 17, 제주학회, 2000.
- 박용옥, “만덕”, 『여성』 176,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81.
- 소재영, “제주의 여인상”, 『국문학 편답기』, 아세아 문화사, 1999.
- 윤치부,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깨어나는 제주여성의 역사』,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2001.
- 이순구, “김만덕 : 굶주린 백성을 살린 사업가”, 『한국 역사 속의 여성인물1』, 한국여성개발원, 1998.
- 이승복, “번암 채제공의 「전」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3.

이신복, “채제공의 만덕전 연구”, 『한문학논집』 12, 단국한문학회, 1994.

정미숙, “채제공과 이옥의 여성전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2.

최준하, “번암 채제공의 「전」 문학 연구”, 『어문연구』 24, 어문연구회, 1993.

현승환, “21세기에서 다시 보는 김만덕”,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2004.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III. 김만덕과 조선후기 제주사회

박 찬 식

1. 김만덕과 시대성

김만덕에 관한 공식기록으로는 『承政院日記』⁶⁷⁾·『正祖實錄』⁶⁸⁾과 蔡濟恭의 「金萬德傳」⁶⁹⁾을 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기록을 근거로 김만덕의 출신과 상업 활동, 진휼, 상경 경위 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만덕은 제주의 기생이다. 20세에 관에 호소하여 贖良하였다.
- ② 배를 가지고 육지를 출입하며 상행위를 하여 수십 년만에 큰 재산가가 되었다.
- ③ 갑인·을묘년 대기근 때千金을 출연해 쌀을 사들여 진휼하였다.
- ④ 출륙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정조 임금을 알현하고 금강산 구경을 다녀왔다.

즉, 김만덕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위 네 가지로 정리된다. 이를 다시 요약하면, 김만덕은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변방 제주섬에 사는 천민 신분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농·공·상 중 末業으로 천시되던 상업을 통해서 巨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재산을 환원함으로써 나라도 하기 힘든 구휼 활동을 했다는 것이다. 변방·여성·천민·상업이라는 최말단의 조건에서 국가·남성·양반·관료도 하기 힘든 구휼 활동을 했다는 독특함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출륙금지령 하에서 제주 여성으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육지 나들이뿐만 아니라 임금 알현, 금강산

67) 『承政院日記』, 嘉慶 원년 11월 28일.

68) 『正祖實錄』, 20년 11월 25일.

69) 蔡濟恭, 『樊巖集』, 권55, 김만덕전.

구경까지 이루어낸 최고 경지의 인간사를 경험했다.

이 글은 김만덕의 이러한 독특한 인간사를 이해하기 위한 시대적·사회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해서 씌어졌다. 그녀가 살았던 18세기 후반은 조선 전체적으로나 제주 지역사회의 측면에서나 조선후기 사회의 전형적인 시대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기이다. 이 시대 제주사회를 이해함으로써 김만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보기 위한 시도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크게 김만덕으로부터 확인되는 네 가지 주요 대목을 중심으로 당시 제주사회의 시대상을 보고자 한다. 주로 기생제도와 신분제, 제주의 상업, 대기근과 진휼제도, 출륙 금지령 등으로 나누어서 검토하고자 한다. 무릇 한 인물의 생애는 그 시대와 사회의 산물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제주사회의 여러 모습 가운데 김만덕의 출신과 활동의 특징적인 면과 관련된 시대상을 살피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기생제도와 신분제

妓란 으레 公婢 출신의 技藝人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의 임무는 가무나 기악을 연주하는 것이었다. 지방의 官妓는 京妓와 달리 종종 소속 관아를 방문하는 관인에게 몸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매춘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역으로서 하는 행위이므로 공창제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⁷⁰⁾ 조선초기 제주지역에서는 관기와는 달리 遊女들이 관의 대장에 등재되어 공창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었으나, 풍기를 문란케 한다 하여 장부를 없애는 조치를 아래와 같이 취하였다.

제주의 풍속에 공사간의 계집종과 양민 집의 딸을 遊女라고 명칭하여, 장부에 이름을 적어 놓고 官婢와 같이 부리기에 그 이유를 물은즉, 말하기를, '이것들이 장사아치를 만나면 음란한 행동으로 財利를 취하여 그 배필을 문란하게 하므로, 노역을 이렇게 시키는 것은 징계를 보이며 음란한 풍기를 금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이들이 더러운 이름을 입기 전에는 오히려 남이 알까 두려워서 혹 행실을 고칠

70) 劉承源, 「양인」,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192-193쪽.

수가 있지만, 이름이 관청 장부에 실리게 된 바에는 터놓고 행동하여 꺼림이 없게 되며, 또 동무들을 유인하기를 좋아하여 혹 감정을 품거나 혹 소문만을 듣고 아무의 딸이 아무 사람과 간통하였다 하여, 서로 끌어들이고 관에서도 또한 일시키는 것을 달게 여기어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유녀로 입적시키니, 이것은 음란한 풍기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권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유녀의 장부를 없애 버리고 유녀로 일컫는 것을 금할 것이며, 그들의 범행에 따라 법대로 죄를 주어 징계를 보이도록 할 것.⁷¹⁾

조선시대 官妓는 慣習都監(掌樂院)의 京妓와 외방 군현의 관기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⁷²⁾ 관기는 국가에 소속된 기생으로 관비 가운데 용모와 재주가 빼어난 자들이 선발되었는데, 관기만이 妓案에 기재되었다. 관기는 거주지역에 따라 京妓와 外方妓로 구분되었다.

서울의 女妓 즉 경기는 조선초기에 관습도감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관습도감은 세조 3년(1457)에 樂學과 통합되어 악학도감으로 되었다. 다시 동왕 12년에 掌樂署에 병합되었으며, 장악서는 뒤에 掌樂院으로 개칭되었다. 『經國大典』에 외방 관비의 選上으로 충원하도록 되어 있음을 보건대, 경기의 신분은 천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관비로서 선상되는 경기의 수는 세종 29년(1447)까지는 125명이었으나, 이 해에 蓮花臺 6명을 포함하여 100명으로 25명을 감액하였으나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증액되어 여기 150명과 연화대 10명 등 모두 160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에게는 2명의 봉족이 지급되었다.

지방 각 고을의 여기들도 각관창기라 하여 창기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를 줄여서 흔히 官妓라 불리고 있었다. 이들 외방기는 지방관아에 속한 기녀로서 外方妓·外方官妓·外方女妓·鄉妓 등으로 불렸다. 이들은 주로 연회에서 가무를 담당하거나, 사신을 접대하고 지방군관과 수령은 위안하는 등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선상되어 경기의 정원을 채우기도 하였다. 선상된 기생들은 選妓·上妓·選上妓·京上妓·選上女妓·選上妓生 등으로 불렸으며, 50세가 되어 악적에서 제적됨으로써 기억을 면제받았다. 이들 외방 각 읍의 관기가 언제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는지 명확하지는

71) 『世宗實錄』, 9년 6월 10일.

72) 全炯澤, 「천인」,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199-200쪽.

않지만 이미 고려시대 이전부터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 각 고을 관기의 신분도 관비였다. 즉 이들은 해당 지방 군현의 관비 가운데서 뽑아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과 양인과의 交嫁 소생의 신분 귀속도 양인과 공사비와의 교가 소생과 같은 범주에서 결정되어 종친 總麻 이상, 外姓 小功親 이상 및 대소 인원이 거느리고 사는 창기의 소생은 종량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⁷³⁾

결국 조선시대의 창기는 노비와 구별되는 별개의 천인 신분집단이라기보다는 노비의 변이형으로 “공노비 중에서 직업이 창기인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녀제도는 인조반정(1623)을 계기로 대대적인 개편을 맞이한다. 원칙적으로 선상기는 50세가 되어 妓役을 면제받아 本邑으로 되돌려질 때까지 장악원에 상주하였다. 그러나 인조 원년(1623) 장악원 소속의 女妓를 혁파한 이후, 연향을 여는 시기에 맞춰 외방관기를 뽑아 올렸다가 연향이 파하면 본읍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다. 따라서 영조 22년(1746)에 편찬된 『續大典』에는 “進宴할 때 女妓 52명을 選上하는데 특별한 傳旨가 있으면 그 숫자를 加減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이는 『大典通編』과 『大典會通』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선상기들은 연향이 파하면 곧바로 본읍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조선후기의 京妓는 장악원을 제외한 중앙관서에 속한 기녀들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仁祖代 이후로는 경기의 정원이 크게 감소한 반면, 혁파된 경기가 귀향하게 되면서 외방기의 수가 급증했다. 또한 선상기가 장악원에 상주하지 않으므로 조선후기에 이르면 외방관기의 비중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⁷⁴⁾

조선은 고려에서 확립된 관기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1909년 일제에 의해 관기제도가 철폐될 때까지 유지하였다. 조선전기에는 選上된 기녀가 장악원에 상주하였던 반면 조선후기에는 연회가 끝나면 本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즉, 인조대에 京妓인 掌樂院 女妓가 혁파되면서 연향이 있을 때에만 외방에서 기녀를 선상하였는데, 개편된 선상제도를 바탕으로 官妓制度가 공고히 확립되었다. 관기는 비록 신분상 公賤이었지만, 사신접대와 지방관 및 지방군관의 위무 등 지방 행정의 일익을 담당하

73) 『經國大典』 권5. 刑典. 賤妻妾子女.

74) 이규리, 「“邑誌”로 본 조선후기 外方官妓의 운용」, 한국사연구회 242차 연구발표회 요지문, 2004.

였다. 기녀의 존재가 조선의 지배이념인 성리학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관기제도가 존속되었음은 기녀가 단순한 남성들의 희롱 대상이 아니라 국가운영상 필요한 존재였음을 뜻한다.

조선후기 제주지방 관기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두 사료는 주목된다. 하나는 숙종 5년(1679) 제주안핵점순무어사로 왔던 李增의 『南槎日錄』이며, 또 다른 하나는 숙종 20년(1694) 제주목사로 부임한 李益泰의 『知瀛錄』에 수록된 기록이다. 전자는 제주 관기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고, 후자는 이 문제점을 개선한 내용을 적고 있다.

① 제주에는 官屬이 매우 적으나 두 관아를 받드는 외에 허다한 軍官들이 있다. 廚籍에도 분류할 수 없어 성 산에서 남편이 없는 자를 淫女라고 불러 房婢로 정하여 나누어 준다. 지금은 그들 친근한 妓女들을 방비로 삼고, 기타 汲水 등 제반 고역을 맡으려 하지 않는다. …… 관원이 된 자는 다만 아무 생각 없이 그 더러운 풍속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또한 따라 즐기면서 듣건대 使喚으로 삼을 셈을 하니 참으로 해괴하다.⁷⁵⁾

② 본주에는 官奴婢 수가 많다. 婢들은 모두 妓案에 들어간다. 다만 지치고 용렬한 약간의 婢子는 營牧에 供須의 역으로 나누어 세우는데, 오래도록 番을 하는 것은 偏苦인 것이다. 妓는 목사를 수청드는 것 외에 삼읍 수령 및 教授·衙客·軍官·三學이 각각 하나의 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함께 거느리며 침으로 허용하여 역을 면제해 주니 한가하게 노는데, 이들은 바로 그 중에서는 빼어난 이들이었다. 또 영목에는 針匠妓가 10여 명 있고, 그 나머지는 教坊妓라고 하는데 茶母와 잡역을 돌아가며 한다. 다 함께 官婢이나 사역이 고르지 않아 공적인 일로 헤아려 보면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다.

데리고 기르는 妓에 이르러서는 총애하는 것을 믿고 스스로 건방져서 세력이 굉장하여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鄕所 이하는 연고를 따라 부탁하는 것을 사람들 모두가 보통 일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간혹 가다 政令에도 폐를 끼치지 않음이 없어서, 세상에서 이르기를 '濟州妓의 권세가 무겁다는 것은 믿어도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한다. 따끔하게 혁파하고 싶어 妓籍에 들어 있는 가운데 매우 우매한 技藝色과 나쁜 짓을 한 추악한 자 7, 8명을 강등시켜 供子로 정하였다. 그리고 군관과 삼학의 방에 있는 기는 茶妓의 역을 돌려가며 하여 사환의 처지에서 할 일을 均役이 되게 하여 정식으로 시행하였다.⁷⁶⁾

75) 李增, 『南槎日錄』, 숙종 6년 3월 25일.

76) 李益泰, 『知瀛錄』, 增減十事.

관기는 관비 중에서 선발되었는데, '奴婢'라는 용어에서도 나타나듯이 관비와 기생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생의 교육기관인 敎坊에 관비가 소속되기도 하고, 官婢房에 기생이 함께 거주하기도 하는 사례가 보인다. "藏春院은 新果園 서쪽에 있는데 기생과 악공이 習樂하는 敎坊이다"⁷⁷⁾라는 기록에서 보듯이, 1895년 당시 제주목에는 장춘원이란 교방이 설치되어 있었다.

외방의 경우 관비는 넓은 의미에서 관기로 인식되었으며, 관비 중에서 특히 酒湯婢와 茶婢·汲水婢라는 雜役婢는 기생의 직분을 수행하였다. 통계적으로 기생은 監營에 10-180명, 府에 4-64명, 牧에 10-15명, 郡에 6-46명, 縣에 3-13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9세기 중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耽羅營事例』에는 제주목에 妓婢가 32명, 官婢가 17명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기비는 또한 針妓(8명)·茶妓·色掌妓(2명) 등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官衙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邑治가 큰 곳일수록 많은 수의 기생이 배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감영이 설치된 邑治는 해당 도의 기생 수 중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감영은 掌樂院 女妓의 혁파 후 選上妓의 주 공급처로 기능했기 때문이다. 외방에서 기생의 주된 역할은 사신접대와 軍鎮慰安이므로 읍지에 나타난 기생의 분포는 사행로와 일치하며 北邊의 기생수 또한 많다. 따라서 8도 중 평안도·함경도·전라도의 기생 수가 다른 도에 비해 월등한 결과를 보여준다.

妓樂을 교습하던 敎坊은 客舍와 樓亭의 근처에 설치되어 사신접대에 기생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국가적 능률주의의 일면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妓畚을 두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방의 운영을 도왔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조선시대 기녀는 남성의 성적 소유물이나 여악의 담당자로 인식할 게 아니라 公賤인 관기가 담당한 역할이 국가 행정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관기가 행한 職役의 대가로 관에서는 일정한 세료 및 일종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의 경제적 처우를 베풀었다.

또한 「김만덕전」에 나온 바와 같이, "탐라의 대부들이 청혼을 하였으나 거절하였

77) "藏春院은 新果園 서쪽에 있는데 기생과 악공이 習樂하는 敎坊이다"('湖南邑誌'〈1895〉, 『濟州牧邑誌』, 宮室).

다”고 하는데, 전통시대 제주의 기녀 출신 여인이 청혼을 거절하였던 또 다른 사례를 다음 사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영문(제주목) 기생 洞庭春이 본현(대정현)으로 귀양와서 縣婢로 강편되었다. 영문 책실에 황서방이란 자가 있었는데 여러번 같이 살기를 요구하였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여러 비장들이 강권하고 영문에서도 권하였으나 역시 거절하였기 때문에 형을 가하였다. 그러나 또 듣지 않으므로 황서방으로 하여금 별도포로 내려가게 하고 동정춘을 食婢로 하여 같은 방에서 거처하게 하였으나, 동정춘은 늙은 어미로 대신 之供하게 하여 몸소 거행하지 않으므로 황서방은 마침내 서울로 돌아가고 동정춘은 본현에 정배되어 온 것이다.⁷⁸⁾

한편 김만덕이 정조 임금을 알현하러 서울에 갔을 때 그녀를 내의원 의녀로 삼아 醫女班首로 삼았는데, 이 의녀의 역할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의녀의 신분적 성격도 창기와 비슷하였다.⁷⁹⁾ 이들은 內醫院과 惠民署에 소속되어 工曹 尙衣院의 針線婢와 함께 京妓에 포함되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이들도 창기와 마찬가지로 지방 각 고을의 관비 중에서 나이 어린 사람을 선상하여 충원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 의녀들이 지방 각 고을의 관비 가운데서 선상되었던 것은 창기와 같지만 이들은 창기와 같이 서울에서 계속 근무한 것이 아니라 의녀로서의 재능과 기예를 익히게 되면 출신 고을로 돌아가 근무하도록 되어 있었다.

의녀는 태종 6년(1406)에 처음 설치되었다. 부녀자들이 질병에 걸려도 수치심 때문에 男醫들에게 환부를 드러내 보이지 않아 치료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일이 많아 부녀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濟生院으로 하여금 나이 어린 倉庫와 宮司의 비수십 인을 선발하여 맥경과 침구의 기술을 가르치게 하였던 것이다.

의녀는 이것이 처음 설치된 태종 때에는 창고와 궁사의 비나 각사의 비 가운데서 선발되어 충원되었으나, 세종 이후에는 지방 군현의 관비가 선상되어 충원되었다. 지방 군현의 관비를 의녀로 선상시킨 것은 세종 5년에 충청·경상·전라도의 계수관에

78) 『大靜縣衙中日記』, 丁丑(1817) 6월 20일.

79) 全炯澤, 앞의 글.

서 10살 이상 15살 이하인 영리한 관비 2명씩을 제생원에 선상시켜 제생원의 의녀와 함께 의술을 가르치게 한 것이 시초였다. 이들 지방에서 선상된 의녀는 의술을 제대로 익히면 출신 고을로 돌려보냈다. 서울에는 의녀가 설치되어 있어 부녀자들이 이에 힘입은 바 컸으나, 지방에는 그렇지 못하여 부녀자들이 질병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의녀의 선상은 그 대상 지역이 하삼도에서 경기·강원·황해도에까지 확대되고 대상 군현도 계수관에서 일반 군현으로 점차 확대되어 문종 때에는 의녀들 대부분이 지방 각 고을에서 선상된 관비로 채워지기에 이르렀다.

지방 각 고을의 관비가 의녀로 선상되어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의술을 제대로 익히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 의술을 제대로 익힌 의녀는 아주 적었다. 이들의 어려움은 의서를 읽고 의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를 익혀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데에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비가 의녀로 선상되기 전에 문자를 익히도록 하였다.

의녀 소생의 신분 귀속은 창기 소생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종친 시마 이상, 외성 소공친 이상과 대소 인원이 거느리고 사는 의녀의 소생은 종량될 수 있었다. 결국 의녀 역시 노비의 변이형으로 “공노비 중에서 직업이 의녀인 자”를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상업의 성행

제주의 자연적 조건은 당시 도민들의 생존과 관련해서 매우 불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농경지로 활용할 수 있는 연안 지역은 薄土가 대부분이었고 들판이라 할지라도 草場이 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寸土如金’과 같은 현상이 항상 존재하였다. 따라서 이런 여건하에 있는 제주민은 생존을 위한 극한적 상황에 필연적으로 직면하게 되고 한 번 흉황을 만나기만 하면 국가의 적극적인 진휼책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영조 시기에는 제주 구휼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의 하나로 羅里浦를 臨陂로 이설하고 이곳 곡물과 제주산 바닷고기·미역 등을 서로 거래하도록⁸⁰⁾ 하였다. 그러나 동 3년(1727) 제주의 미역 생산이 이전만 못해서 나리

80) 『備邊司謄錄』 78. 영조 원년 11월 15일 ; 동 80. 영조 2년 12월 25일.

포 이전 곡식에 대하여 제주 산촌민이 미역을 바치는 것이 어렵게 되자 그 대체물종에 대한 논의가 조정에서 활발히 전개되었다. 그 과정에서 左參贊 金興慶이 제의한 양태 등 토산잡물로 대체가 결정되어⁸¹⁾ 양태는 기존의 해산물과 더불어 제주민의 생계에 주요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미역 채집은 그 잠채 기간이 불과 봄철 뿐⁸²⁾인데 비하여 양태 제조는 연중 가능했기 때문에 미역보다는 오히려 이에 의뢰하는 바가 더 컸다. 더욱이 양태 제조는 기후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모두가 종사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만 갔다. 또한 정조 때에는 양태로 이름을 날렸던 전라북도 金堤 지역⁸³⁾이 국가에 의해 防禁 조치를 받음에 따라서 이 부문에는 제주 양태만이 유일한 독점적 상품으로 부상하게 되어 제주의 양태 생산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당시 제주 양태가 육지로 반출될 때는 주로 강진과 해남 등지를 거쳤으므로 이곳은 양태의 집산지가 되었고 이곳에서 중간상인에 의해 서울의 양태전으로 전매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개성상인들이 강진과 해남에 진출하여 제주에서 건너오는 양태를 매점하고 그것을 전국의 각 도시에 직접 전매함으로써 서울의 양태전이 상품을 구하여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⁸⁴⁾ 이에 양태전은 本廳의 사람들을 직접 강진·해남 등지에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 온 제주양태를 모두 독점하고 이것을 다시 개성상인과 각처에 전매하겠다고 나섬으로써⁸⁵⁾ 제주산 양태와 개성상인은 한동안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양태가 북상하는 길을 따라서 그것이 서울로 들어가는 길목이나 기

81) 『備邊司謄錄』 81, 영조 3년 6월 11일.

82) 『濟州牧關牒』, 道光 29년 1월 4일.

83) 『星湖僿說』 8, 人事門, 生財 조.

84) 박지원의 허생전에 적힌 다음 내용이 이와 비슷한 실상을 전해준다. “허생은 다시 칼·호미·포목 따위를 가지고 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망건의 재료)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 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즉, 허생이 제주에서 말총과 연관되는 양태를 죄다 사들이는 매점매석 상행위를 통해서 이윤을 취득하는 내용으로서, 이 소설이 씌어지던 18세기 후반의 실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85) 『備邊司謄錄』 200, 순조 10년 1월 10일.

타 주요 도시에서 개성상인들의 都賈 활동이 다시 나타나 개성과 안성 등지에서 보다 왕성한 도고 행위가 자행되어⁸⁶⁾ 양태전이 극심한 피해를 입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정조 때 경향 각지에서의 자유스런 판매활동이 보장⁸⁷⁾된 제주상인들은 순조대 이후 서울의 笠匠과 직접적인 거래 관계를 맺는다든가 또는 양태 판매행위에 직접 관여⁸⁸⁾함으로써 서울에서의 양태 판매망을 보다 확대시켜 나갔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판매 활동은 상인 高尚葉의 경우에서 보듯이⁸⁹⁾ 영남지역까지 확대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태산업의 번창은 그 후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그 첫째는 판매행위의 위축으로, 이는 서울 지역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정조시기 제주상인들은 전국을 상대로 한 판매활동이 허용되어 어디서든 자유로운 영업이 가능했었는데 헌종대에는 이러한 환경이 바뀌어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르게 되었다. 즉, 市人輩들이 전에 없는 각종 규제를 만들어서 그들의 판매 행위를 난전이라 칭하거나 혹 도고라고 칭하여 그들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의 양태를 헐값에 매입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그 대금을 갚지 않는 바람에 제주상인들의 차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 것이다. 특히 후자 경우에는 판매 대금 회수를 위한 무작정 체류로 말미암아 객지에서의 비용이 허다하게 소요되는 폐단이 야기되었고, 그래도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상경할 때는 만선이었다가 귀향할 때는 빈손으로 가야 하는 매우 비참한 현상이 전개되었다. 이는 결국 제주의 '交易無物'과 같은 상황을 유발시켜 도민의 생계를 위협⁹⁰⁾하게 되었다.

둘째는 양태 제조에 필요한 箭竹(涼竹)이 점차 고갈되어간 사실이다. 이는 개성상인의 箭竹冒禁事와 관련해서 그 일부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헌종 3년 개성상인들은 무수한 곡물과 무명을 제주민들에게 지급하여 전도의 전축을 도민들로 하여금 잘라

86) 『備邊司謄錄』 215, 순조 27년 1월 13일.

87) 『濟州牧關牒』, 道光 29년 1월 4일.

88) 출륙금지령은 이 때 와서 유명무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기록들은 제주상인들의 자유로운 출륙상행위를 보여 준다. 『비변사등록』 218, 순조 30년 1월 11일 : 동 219, 순조 31년 1월 12일 : 동 224, 헌종 2년 1월 15일 : 동 226, 헌종 4년 2월 14일.

89) 『濟州啓錄』, 道光 23년 3월 7일. 이 자료에 나오는 尹京祿은 토산물 전매를 통해서 선박을 구입할 정도로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90) 『濟州牧關牒』, 道光 29년 1월 4일.

서 가져오게 한 적이 있었다. 이는 도내 양태산업의 폐업을 초래할 정도로 큰 타격을 준 것으로 제주 지방관과의 결탁하에서 가능한 것이었다.

마지막 요인으로 統營 양태의 성장을 들 수 있다. 통영산은 순조 27년(1827)까지만 해도 서울에서의 시중매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단지 궁중 소요품으로서 尙方(尙衣院)에 쓰이거나 혹은 御笠 양태로서만 사용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철종대에 이르면 기존 제주 양태가 누린 지위를 통영 양태가 대신하게 됨에 따라서 제주 양태산업은 사양화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⁹¹⁾ 비록 미역·전복이라는 토산물을 통하여 생계에 필요한 물품을 교역할 수도 있었지만 양태에 의한 그것보다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도민의 궁핍은 날로 심화되어 갔다.

4. 대기근과 진휼제도

조선후기 제주지방은 잦은 자연재해로 농업 생산이 힘들어지고 도민들은 항상 饑饉에 시달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조선후기 제주도에 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사가 바로 饑饉과 賑恤에 관한 것이다.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죽어 가고 있으니 빨리 식량을 보내 달라는 보고가 줄을 이었다. 진휼정책은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민들에게 당장 먹을 식량과 향후 생계에 도움이 될 종자를 지급하고 각종 조세에 대해 감면 조치를 취하는 중앙정부의 대책을 말한다.⁹²⁾

조선후기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흉년이 들었다 하면 피해가 가장 큰 지역에 속했다. 흉년이 들면 목사는 조정에 진휼곡을 내려 달라고 거듭 요청하였고, 그것이 제때 도착하지 못하면 수백 명씩 굶어 죽는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 어떤 때는 목사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사망자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는데, 영조 41년(1765)에 목사 유진하가 제 때 보고를 하지 않아 굶주려 죽은 제주민이 6,000여 명에 이르렀다.⁹³⁾

91) 『日省錄』, 철종 계해년 6월 2일.

92) 이 장에서 서술하는 조선후기 제주지방 진휼제도의 실상은 다음의 글들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음을 밝혀둔다. 조성윤, 「제주의 기근과 진휼」, 『이야기제주역사』 41회, 제민일보, ; 「진휼정책과 김만덕의 선행」, 『이야기제주역사』 42회, 제민일보.

93) 『英祖實錄』, 41년 7월 갑오.

제주도는 다른 지방보다도 토지가 척박하고 많은 땅이 목장지대로 묶여 있어 농사 지을 땅이 크게 부족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기근에 시달리고, 일단 흉년이 들면 중앙정부의 조치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곡물을 자급자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 수공업 제품과 해산물, 그리고 말을 팔아 대신 곡물을 사들여 와야 했다.⁹⁴⁾ 조선전기에는 흉년이 들면 주민들이 유민이 되어 배를 타고 육지 다른 지방으로 떠나기도 했지만, 조선후기에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섬 밖으로 나가는 것도 불가능했다.⁹⁵⁾

따라서 중앙정부는 제주목사로 하여금 농사 형편을 수시로 살펴 보고하도록 했다. 19세기 작성된 『濟州啓錄』을 보면, 일년에도 여러 차례 정기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농사 형편을 보고한 기록이 있다. 한편 조선정부는 초기부터 흉년에 대비하여 곡식을 비축해 두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를 환자(還上)라 하였다. 흉년이 되면 곡식을 나눠 주었다가 이듬해 추수하면 다시 이자를 붙여 갚도록 운영한 것이다.⁹⁶⁾ 따라서 가뭄이나 홍수가 별로 심하지 않을 때는 이 환곡을 이용해 백성을 진휼하였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환곡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목사가 왕에게 진휼을 위한 곡식을 요청하였다.

목사의 요청이 있으면 중앙 정부는 주로 전라도 연안의 수령들로 하여금 비축하고 있던 곡식을 제주도로 실어다 주도록 명령하였다. 이것으로 모자랄 때는 경상도 지역, 심지어는 강화도 창고 곡식까지도 보내 주었다.⁹⁷⁾ 적을 때는 수백 석으로도 가능했지만, 많을 때는 20만석을 넘을 때도 자주 있었다.⁹⁸⁾ 진휼곡 중에는 가끔 쌀

94) 『顯宗實錄』, 5년 3월 무자 : 같은 책, 11년 9월 을축.

95) 『備邊司謄錄』, 숙종 40년 6월 20일.

96) 환곡은 원래 진휼을 목적으로 운영되던 것이다. 그러나 환곡을 분급할 때 발생하는 耗穀을 중앙관청에서 재정을 보충하는 데 사용하게 되었다. 지방관청에서도 이와 같은 형태를 모방하게 되었고, 아울러 지방관청은 경비가 부족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환곡을 창설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조선후기 제주지방 환곡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이 참고된다. 강창룡, 「조선후기 제주 환곡제의 운영실상 -진휼적 기능과 관련하여-」, 『19세기 제주사회 연구』, 일지사, 1997 : 양진석, 「18. 19세기 제주의 수취제도와 특징」, 『탐라문화』 24, 2004.

97) 『肅宗實錄』, 39년 10월 정유.

98) 『肅宗實錄』, 45년 6월 무신.

이 포함되기도 했지만, 콩과 조 등의 잡곡이 대부분이었다. 가끔은 감자와 같은 구황식물도 포함되었다.⁹⁹⁾ 그리고 수천, 수만 석의 곡물과 함께 반드시 소금 수백 석이 제공되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근이 들었을 때는 곡식을 모으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호남의 연안 고을들이 가뭄과 강풍의 재변으로 피해가 심할 때는, 전라도 관찰사와 수령들도 이를 구제하느라 바빴고, 비축해 두었던 곡식도 분배한 뒤라 제주에 실어 보낼 곡식이 부족한 경우가 자주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자주 반복되자, 조선후기로 오면 아예 전라도 연안 羅里浦에 창고를 짓고 別將을 배치하여 제주도의 기근에 대비하도록 했다. 평소에 제주목사는 나리포에 물고기와 미역, 그리고 涼臺를 비롯하여 대나무로 만든 각종 수공업품을 제공하면, 이것을 팔아 곡식을 비축하도록 한 것이다.¹⁰⁰⁾

진휼곡 수송을 위해서는 전라도와 경상도 연안의 統制營·水營에서 관할하는 官船이 주로 동원되었지만, 부족할 때는 商船도 자주 이용되었다. 제주에 보낼 진휼곡 수송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못한 왕이 직접 수송을 전담할 어사를 특별히 파견하기도 했다.

제주도에 기근이 들면 하층민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 흉년이 심할 때에는 다음에 종자로 사용할 곡물까지도 모두 먹어 치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과 소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았다.¹⁰¹⁾ 물론 이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일이었다. 관의 입장에서는 묵인할 수 없는 일이라 강력히 단속하였다. 조선전기에 자주 발생한 牛馬賊 가운데 상당수는 이렇게 생겨났다.

또 식량이 떨어지면 농사짓던 이들도 바다로 나가 먹을 것을 찾거나 산 속을 헤매면서 먹을 수 있는 것이라면 모두 거두어 들여 식량으로 삼았다. 특히 竹實과 상수리 열매는 자주 이용되었다. “漢拏山에는 전부터 紛竹이 숲을 이루었는데, 잎은 크고 줄기는 뽕죽하여 蘆竹이라 이름하였다. 예로부터 씨를 맺지 않았었는데, 4월 이후로 온

99) 『正祖實錄』, 18년 12월 무인 ; 『備邊司謄錄』, 정조 18년 12월 25일.

100) 『備邊司謄錄』, 영조 3년 6월 11일 ; 『英祖實錄』, 39년 8월 임진. 나리포창의 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글이 참고된다. 정형지, 「조선후기 交濟倉의 설치와 운영 -18세기 羅里浦倉 사례를 중심으로-」, 『이대사원』 28, 1995.

101) 『顯宗實錄』, 12년 1월 임오.

산의 대나무가 갑자기 다 열매를 맺었다. 이때 제주도의 세 고을이 몹시 가물어 보리 농사가 흉작이었으므로 백성들이 바야흐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때 이것을 따서 죽을 만들어 먹고 살아난 자가 많았다”¹⁰²⁾는 보고와 제주사람에게 영조가 흉년의 실정을 묻자 제주 백성들이 나뭇잎을 따먹는다고 대답했던 것¹⁰³⁾은 흉년 때의 제주민의 실정을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상황에서 곡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목사는 牧場 屯馬에게 烙印을 찍고 점검하는 일과 軍兵의 훈련, 노비의 推刷 등의 일은 모두 정지하고, 進上馬와 別御乘馬 점검을 중지시키고, 이를 위해 비축해 두었던 말먹이들을 모두 진휼곡으로 돌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다.¹⁰⁴⁾ 궁중에 바치는 물건과 각종 약재도 특별히 면제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무사히 도착한 진휼곡을 제주도민들에게 분배할 때, 목사는 제주도민들의 굶주린 정도를 조사하여 등급을 나누어 곡식을 분배하는 한편, 부족할 때는 다시 조정에 추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일부 목사들은 스스로 자신의 봉급을 털어 넣어 곡식을 마련하는가 하면, 상인들을 동원하여 제주에서 내다 팔 물건들을 갖고 육지로 가서 곡식을 사 오도록 하기도 하였다. 물론 모든 목사들이 적극적으로 굶주린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었다.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의 굶주림을 보살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더욱 제멋대로 매를 때리며 재물을 빼앗는데 혈안이 되었던 목사들도 많았다. 때로는 기민의 수를 부풀려 보고한 다음, 진휼곡을 제대로 나누어주지 않고 목사가 착복한 경우도 있었다.

진휼이 무사히 진행되어 백성들의 배고픔이 진정되면, 제단을 설치하고 조정에서 보내 온 香祝으로 굶어 죽은 혼령들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제주의 지배 세력을 위로하기 위하여 과거를 실시하고, 試射를 베풀어 문무과 합격자를 선발하였다. 또 가끔은 80세 이상 된 노인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베풀기도 하였다.¹⁰⁵⁾ 진휼이 끝나고 나면 이에 감사하는 뜻으로 백성 중 일부가 전복 등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

102) 『景宗實錄』, 3년 7월 신사.

103) 『英祖實錄』, 13년 11월 경신.

104) 『景宗實錄』, 2년 11월 병술.

105) 『顯宗實錄』, 12년 9월 갑자.

임금에게 바치려 한 경우도 있었다.

정조 16년(1792)년 시작된 흥년은 정조 19년(1795)까지 계속되었는데, 특히 1794년 갑인년에 절정에 달했다. 이때는 조정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계속해서 진휼곡을 실어 날랐으며, 특별히 어사를 파견해 감독하기도 하였다. 1796년 전라도 관찰사는 3년 동안 각종 곡물 5만3,500석을 수송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밖에도 왕실에서 직접 물자를 내주고 돈을 1만 냥을 보내 곡물로 바꾸어 사들이는 것 등을 합치면 훨씬 많은 양의 곡물이 필요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곡물 운송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1794년 윤2월에는 1만1,000석을 싣고 오던 배들 중에 5척이 침몰하여 1,928석이 물에 잠기고, 監官 1명도 익사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러자 토착 지배층이 곡식을 진휼곡으로 내놓는 경우가 나타났다. 흥년 첫해인 1792년에 明月萬戶 高漢祿은 쌀 60섬과 벼 60섬을 바쳤고, 그 공로로 정의현감에 임명되었는데, 1794년에는 고한록이 다시 300석을 바쳤으며, 將校 洪三弼과 幼學 梁聖範도 각각 100석씩을 자진해서 바쳤다. 이 때문에 나중에 고한록은 대정현감으로 임명되었고, 둘도 벼슬을 주도록 왕명이 내려졌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김만덕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500석을 마련하여 50석은 굶주리는 친족들에게 나누어주고, 450석을 관에 바쳤다.¹⁰⁶⁾ 이 소식을 들은 굶어 부은 백성들이 관가로 모여들었다. 목사가 곧바로 이것을 분배하여 주자, 주민들이 모두 “만덕의 은혜를 입었으며, 만덕이 나를 살렸다”고 노래하였다. 목사는 조정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미혼 여성이 상업계의 전면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도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고, 여성이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자신의 재산을 털어 기민을 구제하는 데 앞장선다는 것은 전에 볼 수 없었던 善行이었다.

일반적으로 진휼을 마치면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다. 상을 주는 제도는 10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왕이 직접 글을 써서 내려주는 것부터 말·활 등 각종 상품을 하사하는 것, 그리고 벼슬이나 품계를 올려주는 것까지 다양하였다. 그러나 만덕은 다른 양반 관료들이나 부자들과는 달리 여성이었고, 空名帖을 줄 수도 없었다. 때문

106) 『日省錄』에는 正租 300석을 바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日省錄』 정조 병진년 6월 6일).

에 왕은 목사를 통해 그녀에게 어떤 상을 바라는지 물어 보았다. 그때 그녀는 바다를 건너 서울과 금강산을 유람하기를 원하였다. 그녀의 소원은 사실 다른 상을 받거나 벼슬을 받는 것보다도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출륙금지령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주인들이 섬 밖으로 나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더구나 여자의 출륙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실정이었기 때문이다.

5. 출륙금지령

제주도는 원래 화산섬이기 때문에 토질이 척박하여 땅으로부터 나는 생산물에만 의존하여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었다. 때문에 도민들은 일찍부터 전복·미역 등의 수산물, 유자·귤 등의 과실류, 말을 비롯한 목축물, 가내수공업품을 가지고 육지에 나아가 쌀·배·소금 등을 맞바꿔 오곤 하였다.

이와 같은 제주도민의 어려운 생활은 조선왕조의 집권적 지배체제가 확립됨에 따라서 더욱 악화되었다. 즉 조선왕조의 행정력이 제주도에까지 미쳐 옴에 따라서 공물 진상과 그에 따른 노역 징발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갔다. 선조 34년(1601) 제주에 어사로 왔던 金尙憲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생산물이 거의 공물이나 관청의 수요에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수령과 토호에 의한 수탈까지 겹쳐서 도민들은 더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되었다.¹⁰⁷⁾ 더욱이 조선초기 이래 빈번해진 왜구의 침범에 따라 제주도 해안 방어가 엄중해지면서 제주의 남정들에게 과다한 군역도 부과되었다.

고역에 시달리던 제주민들은 역을 피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제주섬을 떠나갔다. 이미 15세기 후반부터 군역을 담당해야 할 良人 및 正兵, 진상역을 담당해야 할 公賤 등이 역을 피해 제주를 떠나 전라도 연변의 여러 고을로 옮겨 살고 있었다.¹⁰⁸⁾ 흥년

107) 『南槎錄』 권1, 선조 35년 9월 22일.

108) 성종 4년(1473) 전라도 관찰사가 전라도 연변 고을에 옮겨 사는 출륙 제주도민을 推刷한 것을 보면, 良人 91명, 正兵 3명, 船軍 12명, 公賤 29명, 私賤 17명이었다. 이들 중 추쇄 대상은 정병·선군·공천으로서, 모두 군역과 진상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成宗實錄』, 4년 3월 28일).

이 들거나 진상역이 심해지면 유랑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바다를 건넌 이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전라도·경상도 해안에 정착하였다. 특히 성종대로부터 이주 현상이 늘어나면서 이들 출륙 도민들이 여러 곳에 모여 살기 시작하였다. 『성종실록』에는 “제주 사람들 2백여 명이 泗川에 와서 사는데, 제주의 ‘豆禿也’라고만 이름을 칭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2, 3척의 배를 가지고 드나들더니, 이제는 32척으로 늘어났으며, 강기슭에 의지하여 蘆幕을 짓고 산다고 한다”고 기록되기도 하였다.¹⁰⁹⁾

조선 정부는 이들 제주피역자들을 주로 ‘鮑作’·‘浦作’·‘鮑作人’·‘鮑作干’ 등으로 불렀다.¹¹⁰⁾ 한편 출륙 제주민들이 거주한 남해안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들을 ‘頭無岳’이라고 불렀다. 왕조실록에는 “연해에 頭無岳이 매우 많은데, 제주의 한라산을 혹 두무악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세속에서 제주 사람을 두무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頭禿이라고 쓰기도 한다”고 적혀 있다.¹¹¹⁾ 이 명칭은 그 외에 ‘頭無惡’·‘豆毛惡’·‘豆毛岳’·‘頭毛惡’·‘豆禿也只’ 등으로도 쓰였다.¹¹²⁾

이들은 언어와 습속 등 생활양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그곳 주민들로부터 기피되었고, 정부로부터도 왜구와 내통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강력한 통제를 받았다. 때문에 이들 이주민들은 그곳에서도 진상용 해산물을 채취하여 바치는 역을 전담하면서 육지인과는 격리된 가운데 그들만의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천시되었지만 점차 동족 촌락을 이루기 시작하여 경제적·사회적 기반을 구축하여 17세기 후반 이후로는 육지의 양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¹¹³⁾

109) 『成宗實錄』, 8년 8월 5일.

110) 『成宗實錄』, 14년 12월 6일 : 같은 책, 16년 4월 11일 : 같은 책, 16년 4월 12일 : 같은 책, 16년 4월 19일 : 20년 4월 21일 : 21년 10월 24일 : 『中宗實錄』, 17년 5월 28일 : 같은 책, 17년 6월 26일 : 같은 책, 33년 2월 11일 : 같은 책, 35년 1월 10일. 국어학계에서는 조선시대 ‘鮑作’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전복·조개·미역 등 해물을 채취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보자기’의 한자 차용 표기라고 한다. 제주도 방언으로는 ‘보재기’라고 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浦作’이라고도 표기된다(김찬흡·고창석 등 옮김, 『역주 탐라지』, 푸른역사, 2002, 155쪽).

111) 『成宗實錄』, 23년 2월 8일.

112) 『成宗實錄』, 8년 8월 5일 : 같은 책, 8년 11월 21일 : 같은 책, 17년 11월 22일 : 같은 책, 20년 12월 10일.

113) 韓榮國, 「豆毛岳考」, 『韓汝勳博士停年紀念私學論叢』, 知識産業社, 1981.

출륙도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잔류하여 있는 도민들은 더욱 많은 부담에 시달리게 되어 피역 출륙이 그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그러나 조선 정부에서는 제주도의 유망민들에 대한 행정적 개선을 외면한 채 남해안의 각 군현에서 관내의 출륙 제주도민을 낱낱이 조사 등록하고 이들에게 역을 부과함으로써 그 주거와 생활을 더욱 강력하게 통제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의 조치로는 제주도민의 출륙을 근본적으로 억제하지 못하였다. 제주도민에 대한 근본적 생계유지책을 마련하거나 해적·왜구를 그치게 하는 데에는 하등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성종 21년(1490) 10월 제주의 진상물을 실은 선박이 해적에게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에서는 출륙 제주도민의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의 출입을 허가제로 할 것을 검토하게 되었고, 또 지금까지 조사 등록되지 않은 새로 육지로 도망쳐 온 제주도민을 모두 원주지로 돌려보낼 것을 검토하게 되었다.¹¹⁴⁾ 이후 정부는 수시로 이들 새로운 출륙 제주도민을 돌려보내는 한편, 도민의 불법 출륙을 방지하기 위해 도내의 항구를 朝天과 別刀로 한정시켰다.¹¹⁵⁾ 당시 이러한 상황을 효종대 제주목사 李元鎭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이 섬 백성들의 생활은 어렵고 男丁에게 지워진 역이 지나쳐 삼읍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자가 매우 많다. 혹 바다를 건너 도망간 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고 하나 그 얼마인지 모른다. 혹 무리 지어 한 곳에 모여 살아 한 촌락을 이루어 자손을 낳고 자라서 세월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노비를 쇠환하는 법이 비록 엄하고 하여도 법을 집행하는 관리들이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李慶億이 장계하길, 먼저 10년 이내에 도망한 자들을 刷還하였는데, 흥년이 들어 또 쇠환하는 기간을 없앤다 하니 탄식할 일이다.¹¹⁶⁾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륙도민의 발생은 줄어들지 않았다. 15세기 중반부터 시작된 피역 출륙 현상은 장기적으로 이어졌다. 16세기 중반 정부에서는 “제주도는 인물이 떠돌아 날이 갈수록 공허하여진다”¹¹⁷⁾, “제주의 세 고을은 주민들이

114) 『成宗實錄』, 21년 10월 24일.

115) 『南槎錄』 권3, 선조 35년 10월 12일.

116) 李元鎭, 『耽羅志』, 濟州牧, 奴婢조.

117) 『中宗實錄』, 33년 2월 11일.

날로 流亡하여 고을이 거의 빌 지경에 이르렀다”¹¹⁸⁾고 우려하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미 16세기 말엽에 도민의 수가 반으로 줄어든 정도로 이들의 출륙은 격렬하게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 세종대 民戶가 9,935호, 인구가 6만3,093명이었는데,¹¹⁹⁾ 숙종 5년(1679)에는 인구 수 3만4,980명으로¹²⁰⁾ 인구가 절반 가까이 격감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종 5년(1664) 충청감사 李翊漢의 “제주의各司奴婢로서 육지로 나와서 살고 있는 자의 숫자가 1만 명에 가까웠다”는 기록은 실상에 가까운 보고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군역과 진상역을 담당하는 男丁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으로 여겨졌다. 16세기 후반에 이르자 ‘男少女多’의 인구 불균형 현상이 만연하였다.¹²¹⁾

조정에서는 이제 제주도민의 출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도를 강구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인조 7년(1629) 8월 “제주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流離하여 육지의 고을에 옮겨 사는 관계로 세 고을의 軍額이 감소되자, 備局(비변사)이 島民의 출입을 엄금할 것을 청함”에 따라, 제주도민의 출륙을 엄금한다는 명이 떨어졌다.¹²²⁾ 또한 제주의 여인과 육지인과의 혼인을 금할 것을 국법으로 정하고 여인의 출륙은 특별히 더 엄금하였다. 그러나 과거응시자와 공물진상물의 운반책임자와 기타 공적인 업무수행자에 대해서는 출륙이 허용되었으며, 금지령이 내린 가운데에도 유망자에 대한 刷還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있던 인조-순조 년간의 200여 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제주도민은 섬 안에 갇혀 있으면서 왜적을 방위하는 역할, 공물·진상물을 조달하는 부역을 강요당하였다. 이 진상 공물은 말을 비롯한 목축물, 미역·전복 등 해산물, 표고·약재 등 임산물, 동정굴·청굴 등 과실이였다. 이 특산물을 조달하고 운반하기 위해 말을 지키는 牧子, 바다에 들어가 전복·미역을 따오는 鮑作·潛女, 과원을 지

118) 『中宗實錄』, 35년 1월 10일.

119) 『世宗實錄』, 17년 12월 12일.

120) 李增, 『南槎日錄』, 숙종 5년 12월 초8일. 인구 3만4,980명 가운데 남정은 1만5,140명, 여정은 1만9,840명이였다.

121) “제주 남자는 배가 침몰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해에 100여 인이나 된다. 그 때 문에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어 시골 거리에 사는 여자들이 남편 있는 사람이 적다.”(『南溟小乘』, 선조 11년 2월 16일).

122) 『仁祖實錄』, 7년 8월 13일.

키는 果園直, 배를 몰아 공물을 바다 건너 육지로 옮기는 船格을 정해 놓았다. 이들에다가 官畚을 경작하는 畚漢을 합쳐서 六苦役이라 불렀다.

이들 고역담당자 외에도, 그 노비공으로 서울의 각 아문에 보내는 공물을 마련하는各司奴婢가 존재하였다. 효종 4년 당시 제주목 14,334명, 정의현 1,565명, 대정현 277명 등 16,176명의 각사노비가 있었다.¹²³⁾ 18세기 초 숙종대에는 제주의 총 인구 43,515명 가운데 寺奴婢(각사노비를 말함)가 23,948명으로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¹²⁴⁾ 또한 숙종 20년(1694) 기록에는 각사노비가 도민 중 2/3를 차지한다고 적혀 있다.¹²⁵⁾ 주로 노비공에 의해 마련하는 공물은 제주목·정의현·대정현 삼읍이 각각 책임을 졌고, 그 외 대부분의 공물은 목사가 직접 관장하여 삼읍에 배정하였다.

이 시기에 제주도민이 바쳐야 했던 조세는 이상과 같이 중앙정부에 바치는 진상·공물 외에도 제주도 내의 관아 재정에 충당되는 토지세·대동세·환곡미·평역미 등 번잡하고 과중하기 그지없었다. 또한 제주도는 지리적으로 중앙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교통이 매우 불편했기 때문에 공물 상납을 제외하고는 행정과 재정 운영이 거의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지방관인 목사나 판관·현감이 향리층 및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중앙의 지휘를 거의 받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통치구조로 인하여 제주도민에 대한 수탈은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더욱 심하여져 갔다.

도민들에 대한 근원적인 생계유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출륙금지령이 내려져 있다 하여도 위험을 무릅쓰고 제주도를 벗어나려는 이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었다. 불법출륙인들 가운데에는 각사노비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대에 제주에 어사로 왔던 윤심이 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건대, 제주도 내의 각사노비 가운데 출륙한 노비들의 貢米를 수납하기 어렵다 하여 쇄환시키기 어려운 노비들의 공미는 소재지의 관리가 거두게끔 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영조대에는 이들의 출륙 도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도 삼읍인으로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자는

123) 이원진, 『탐라지』.

124) 이형상, 『탐라순력도』: 『남환박물』, 숙종 5년(1679)에는 각사노비가 도민의 과반수이며, 삼읍 합계가 15,079명이라고 하였다(李增, 『南槎日錄』, 숙종 5년 12월 10일).

125) 이익태, 『지영록』, 증감십사.

별을 준 다음 곧 원적지로 돌려보낸다. 이들은 거둔 자도 곤장 1백대를 쳐서 3천리 밖으로 유배를 보낸다”라는 법령을 『續大典』에 명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출륙금지령을 내린 정부의 의도와 어긋나는 현상이 영조대 이후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다름 아닌 육지 중간상인들의 제주도 출입과 제주상인들의 육지 출입이 그것이었다. 영조대 이후로부터 도내에서 부쩍 생산이 늘기 시작한 갯양태 등의 가내수공업품, 미역·어류 등의 해산물과 육지부의 미곡을 교역하려는 움직임이 개성상인·안성상인과 같은 육지상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육지인들의 제주도 출입이 잦아지게 되었다.

조정에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 정조 2년(1778)에 당시 영의정이었던 김상철은 왕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아뢰면서 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제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조 후년에 가서는 육지상인뿐만 아니라 제주상인까지도 경향 각지에서의 자유로운 판매 활동을 보장받게 되어 도내에서 생산된 갯양태·해산물 등을 가지고 가서 교역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

이제 출륙금지령은 그 실효를 거두기가 힘들게 되어 버렸다. 결국 순조 23년(1823)에 와서는 제주에 어사로 왔던 조정화가 왕에게 제주도민의 육지 왕래와 육지인과의 결혼을 허락할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고, 제주도에 내려진 출륙금지령은 이때에 완전히 해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이 제주도에 내려졌던 출륙금지령은 제주도민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굴레로 씌워졌던 것으로서, 결국은 제주도민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자연 해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IV. 김만덕 삶의 현대적 조명

변 종 현

1. 김만덕 연구의 현대적 의의

여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21세기 패러다임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무시되거나 제대로 평가되지 못해 온 여성들의 삶에 대한 온정적 배려나 잃어버린 인류의 반쪽에 대한 연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여성에 대한 조명이 단지 그들만의 이야기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와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근본적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새로운 접근이기보다는 오히려 당연한 것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는 여성 운동의 비약적인 발전과 여성주의의 확산으로 여성의 권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21세기 여성의 시대에 걸맞게 그 동안 금기시되어 왔던 여성의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가운데,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 그리고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에 관한 기대와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형성해 온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문제 제기와 더불어 부당하게 취급되었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되어 온 여성에 대한 재조명과 여성의 권리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 인물에 대한 관심과 새로운 접근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의 과거 속에 잊혀져 있던 그러나 주어진 운명과 사회에 맞서 치열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했던 많은 여성 인물에 대한 발굴과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지금까지의 부정적 인식과 편견을 바로잡고 여성을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의 표출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제주 여인 김만덕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연구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18세기 조선 사회를 살았던 제주인 김만덕에 관한 최근의 관심과 연구는 한 여성에 대한 전기적 차원의 접근을 넘어, 그녀의 삶이 지닌 현대적 의미를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보고 나아가 오늘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조명이 단순한 연대기적 이해를 넘어서는 매우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신분 질서가 부여한 귀속적 지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교 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송받게 된 조선의 여인이 만덕이며, 오늘의 기업가 정신에 상응하는 모험과 도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한 성공한 CEO가 또한 만덕의 모습이기도 하다.

만덕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와 접근은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그리고 만덕의 삶을 감싸고 있었던 다양한 여러 가지 변수와 맥락을 고려할 때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고정된 시각에서 만덕을 바라보는 것은 그녀의 삶이 지닌 의미를 하나의 전체로서 파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조선 영·정조대의 정치 질서와 사회 변화 그리고 당시의 거시적인 경제 체제와 제주 경제, 그녀의 경제 활동 사이의 관계를 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을 때, 다양한 모습의 만덕을 만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만덕의 모습은 다양하다. 만덕의 정체성의 근원은 다양한 층위를 이루고 있다. 기녀에서 출발해 불굴의 의지로 유통업을 개척한 기업가의 모습에서, 오늘날 서구 자본주의 정신의 도덕적 기초에 상응하는 우리의 상도(商道)를 실천한 경제인,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제주 도민을 위해 기꺼이 환원한 자선가, 그리고 부자유한 시대에 여성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은 자유인의 모습에서 18세기 조선 사회를 치열하게 살았던 만덕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처럼 만덕을 규정했던 다양한 정체성의 근원을 이해할 때, 과거의 만덕이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 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2. 김만덕의 생애와 페미니즘

1) 만덕의 삶과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여성주의 혹은 페미니즘(feminism)의 관점은 김만덕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주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이다. 하지만 페미니즘은 그 개념 정의부터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다원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페미니즘과 관련해서는 여성론, 여권신장론, 여성해방운동, 여성주의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 운동과 학문적 이론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이라고 할 때는 이러한 다양한 형태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여성에게 가해지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반성차별주의의 이론 및 실천을 의미하며 여성 집단의 공동체적 이해와 유대를 강조하는 다양한 사상들을 지칭한다. 요컨대, 여성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여성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현존의 사회 체제에 도전하여 여성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평등을 달성하는 데에 관심을 갖는 규범적인 이론과 운동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은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 사용되어 왔다. 1970년대 중반 페미니즘의 도입기에는 여권론, 1980년대에는 여성해방론 그리고 199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는 여성주의 또는 페미니즘이라는 원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이 어떠한 용어로 통용되든, 그 개념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차별과 억압에 반대하고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기본 정신이 관통하고 있다.

페미니즘은 여성됨에 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 시작한다. 여성의 법적 지위가 과거보다 크게 신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여자란 모름지기', '감히 여자가' 하는 식의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며, 이러한 관념들이 여러 가지 관행이나 법, 제도 등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속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페미니즘은 이처럼 당연시되는 관념과 상식에 도전한다. 이와 같은 출발선상에서 페미니즘은 역사 발전 이래 오랫동안 남성 중심으로 왜곡되어 왔던 인류 사회의 성적 불평등을 개선하고, 그 동안 은폐 내지는 평가절하 되어왔던 여성성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여성의 활동과 삶을 부각시켜 궁극적으로는 성적 차이가 어떠한 차별의 근거도 되지 않

는 평등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만덕의 삶 속에는 다양한 형태의 페미니즘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조선 사회의 유교적 신분 질서를 통해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법적 제도적 불평등을 만덕이 그의 삶과 도전 속에서 극복하였다는 사실은 만덕을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로 볼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개인이 지닌 인격체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관점은 법적 제도적 불평등에서 비롯된 성차별주의의 문제를 지적한다.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불공평한 출발선상에서 불리한 조건들을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동일한 조건과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8세기 조선의 가부장적 유교 문화와 정절 이데올로기는 남성 위주의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한 것으로서 여성에게는 불공평한 환경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조선 시대에 강조되던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고정 관념과 여성에 대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이미지는 모두 사회의 관습과 제도를 통해 고착되어진 그릇된 사회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시대의 여성에게 당연한 것으로 부과되었던 불공평한 출발선과 불리한 사회적 조건을 극복하고 만덕이 유교 사회의 중심부에서도 인정받는 여성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사실은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의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선구적 페미니스트의 삶

만덕이 가부장적 유교 문화 속에서도 여성으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출륙금지령과 같은 법과 관례를 깨고 육지로 나가는 최초의 제주 여성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벼슬인 의녀 반수에 올랐고, 금강산 구경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경계를 넘어섰다는 것 등에서 페미니스트로서의 만덕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만덕의 행적이 유교 선비들로부터 칭송을 받았고, 제주 도민 모두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18세기의 김만덕이 주변부 여성의 삶을 뛰어 넘어 유교 사회의 중심부에서도 인정받는 여성으로 거듭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측면들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주목하는 바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만덕이 추구했던 삶의 목표가, 그리고 그녀가 높이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했던 많은 덕목들이 본질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치 판단을 반영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애써서 쌓아온 업적이나 지위들이 모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성들이 좋아하고 높이 평가하는 것들(예컨대, 권력이나 재력, 사회적 명성 등등)이지 본질적으로 여성들이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만덕이 자신도 모르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스스로를 맞추어 넣으려고 했다면, 이것은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 지닌 한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덕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남성 위주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투영된 것 이외에 여성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8세기 조선의 유교적 전통 문화 속에서 여성성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 점은 바로 오늘날 피메일리스트들이 주목하는 바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페미니즘과 피메일리즘의 구분은 여성 해방 내지는 남녀 평등의 이상에 접근하는 방법론적 차이에서 생겨난다. 페미니즘은 남성과 여성의 성에 따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한 차이를 모두 왜곡된 사회화의 산물로 보는 데 비해, 피메일리즘은 여성적인 것의 특징들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한다. 다만 여성적인 것이 약점도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의 강점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강점을 새롭게 인식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고 체격이 크며 수학과 논리학에 뛰어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반증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러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다른 분야들이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성차에 따른 역할을 재조정하고 분담하는 편이 좋다는 것이 피메일리스트의 생각이다. 예컨대, 타인에 대한 배려, 섬세한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사고의 유연성 등에서 여성이 앞선다는 사실을 제대로 평가하고 이를 정당하게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편이 보다 실리적이고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여성에게 일방적으로 부과된 남성 중심의 유교적 신분 질서와 정절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피해자가 아니라 만덕이 여성으로서 자신의 감정

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표현하는 개방적인 풍모를 보였다는 지적은 피메일리스트의 시각에서 만덕을 조명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만덕전」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대 여성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함몰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과는 다른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혁신적 사고와 도전 의식 그리고 강한 의지와 각고의 노력을 통해 여성에게 부과된 경계를 뛰어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랑과 감정에 충실했던 주체적인 여성이 바로 만덕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만덕은 흔히 남성성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시대를 꿰뚫는 지적 능력과 불굴의 개척 정신, 강한 의지력 등과 함께 전통적으로 여성성의 특징으로 간주되는 타인에 대한 보살핌과 나눔의 미덕을 함께 지닌 양성적 인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만덕의 삶을 페미니즘 혹은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조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3) 주체적인 삶의 개척자

만덕의 성공 신화는 그녀가 제주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었고, 자신이 애써 모은 물질을 다른 이들을 위해 대가 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기존의 제도와 질서에 순응하기 보다는 자신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점 그리고 그렇게 맞설 수 있는 용기와 도전의 정신을 발휘했다는 사실이다.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한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를 기획하고 경영했던 인물이다. 만덕이 여성과 기녀라는 성과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선택하고 주체적인 인생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 기녀에서 벗어나 양인의 신분을 되찾는 인생 역정이다. 만덕의 삶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부모를 여의고 어린 나이에 기녀가 되었다가 20세에 다시 양녀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기녀로 평생을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가에 간곡히 호

소하여 기적(妓籍)에서 이름을 없앴다는 것은 그녀가 얼마나 주체성이 확고한 여성인가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주목할 부분은 다른 많은 기녀들이 선택한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기적에서 벗어났다는 점이다. 기적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첩의 길을 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덕은 한 남성을 선택하여 가부장제의 구도 속에 안주하고 보호받는 첩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체적인 삶을 선택하였다.

직업이 신분이었던 조선 시대에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기녀는 그녀의 직업이 아닌 신분이었다. 물론 조선 시대에도 신분이 상승되는 경우는 있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을 세웠을 경우에 명예직의 벼슬을 내리거나 면천(免賤)하는 방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만덕은 자신의 설득력과 경제적 능력을 통해 기녀에서 양인으로 그리고 객주 주인으로 삶의 형태를 바꾼다. 이처럼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갖춘 후 사업적 수완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함으로써 자기 운명의 개척자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만덕이 불가능에 가까운 낮은 확률에 도전하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정신을 보여 준다.

둘째, 양인의 신분을 회복한 뒤에 만덕이 선택한 독신으로서의 삶이다. 양인으로 돌아온 만덕은 한 남성과 결혼해 평생을 그 그늘 아래에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 또한 그녀가 얼마나 주체적인 삶의 목표를 지니고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노비나 기녀 등이 아닌 여성이 조선 시대에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덕이 혼자 사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높은 자존감과 더불어 자신이 속한 사회의 제도를 넘어설 수 있는 결단력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덕이 상업적 수완을 발휘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된 이면에는 남성들을 머슴으로 거느리는 경영 능력과 인간 관리 능력이 자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남성들을 머슴으로 거느리기는 했으나 남편으로 맞이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만덕이 남성 중심의 유교 문화에 동화되어 한 지아비를 섬기며 가정에 안주하기 보다는 더 높은 사회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했음을 보여 준다.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녀로서 유교 사회의 주변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으나 만덕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당시 활발해진 해상을 이용한 유통업에 눈뜨고 여성 기업인으로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갔

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인물이었다.

셋째는, 만덕이 여성에게 부과된 한계를 뛰어넘어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과정이다. 여성에게 엄격했던 사대부들이 가난한 집안 출신의 전직 기녀였던 독신녀를 앞다투어 칭송하게 된 것은, 만덕이 객주를 운영하면서 제주도 물품과 육지 물품을 교역하는 유통업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이루었고, 그 부를 계속되는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 도민을 살리는데 쾌척하였다는 사실에서 비롯되었다. 유교적 가치가 지배하는 신분 사회의 벽을 넘어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이를 다시 사회에 환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녀가 주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만덕은 자신이 쌓은 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정조의 칭송을 한 몸에 받았고 비록 명예직이긴 하지만 의녀 반수라는 여성으로서는 최고의 벼슬에 오름으로써 유교 사회의 중심부에 우뚝 서게 되었다.

또한 대궐을 찾아 정조를 대면하고 금강산 구경을 원했다는 것은 당시 제주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출륙금지령의 테두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이동의 자유를 요구하고 성취한 것이기도 하다. 더욱이 금강산 구경을 소망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남성에게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매우 진취적인 사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한번 기적에 올랐다가 양녀로 돌아오는 것도 어렵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모아 빈민을 구휼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남성들도 감히 엄두를 낼 수 없는 금강산 구경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만덕의 진취성을 읽어 낼 수 있다. 정조의 명을 받아 소원을 묻는 제주 목사 이우현에게 만덕이 다른 소원은 없사오나 오직 한 가지, 한양에서 임금님 계시는 궁궐을 우러러보는 것과 천하 명산인 금강산 1만 2천봉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답하는 모습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번의 기회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을 위해 멋지게 투자하는 만덕의 모습을 보게 된다.

너무도 부자유한 시대에 새로운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이것을 개척해 나간 용기 있고 적극적인 그리고 진취적인 여성의 이미지가 바로 만덕의 모습이었다. 만덕을 오늘날 다시 생각하는 것은 엄중한 유교 규범과 남성 중심의 이데올로기가 여성을 옥죄고 있던 시기에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당시 여성에게 지워진 법적 제도적 문화적 한계를 거침없이 뛰어넘어 이상을 성취한 그녀의 용기와 도전 때문일 것이다.

3. 김만덕의 경제 활동과 자본주의 덕목

1) 자본주의 덕목의 요체

만덕의 삶을 조망해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용한 관점은 그녀의 경제 활동에서 묻어나고 있는 현대적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정신(spirit of capitalism)이다. 인간의 경제 활동 이면에는 인간의 행동과 사고 방식을 결정하는 정신적 측면이 배태되어 있다.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만덕이 기녀로서의 삶을 정리하고 유통업에 도전하여 막대한 자본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경제 활동에서의 윤리적 덕목들이다. 이것은 서구적 의미의 자본주의 정신 혹은 우리의 상도(商道)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장 경제의 역기능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가 인간의 얼굴과는 거리가 먼 그리고 도덕과는 무관한 사회라고 주장한다. 이기적인 원자적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는 공간으로서의 시장은 자원 배분을 위한 기제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아담 스미스(Adam Smith)에서 비롯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에서 엿볼 수 있듯이, 자유주의와 자유 시장 경제 혹은 자본주의 사회는 결코 도덕적 감성으로부터 유리된 사회는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이기심에 의한 이익 추구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경우라면 철저하게 옳지 않은 것으로 간주했다. 그가 생각한 이익 추구나 경쟁의 개념은 무자비하고 무절제한 이익 추구나 경쟁이 아니라 스토아 철학의 이념을 반영한 절제되고 규율된 이익 추구하고 경쟁이다. 따라서 견제와 절제가 전제된 경쟁이 이루어 질 때 자유 사회와 시장 경제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다. 자유로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와 같은 도덕적 규범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자본주의는 도덕과 관계없이 극단적 경쟁과 사적인 이익 추구만을 지향하는 경제적 기제가 아니라 도덕적, 문화적 가치를 전제로 한다.

베버(M. Weber)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자본주의 정신이 내면화하고 있는 일련의 고유한 특성들을 분석하였다. 신용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일이 자기 자신의 목적이자 의무라

고 생각하는 사상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또한 성실, 시간 엄수, 근면, 절약, 불확실성 상황에서의 결단 등이 모두 자본주의 정신의 요체이다. 베버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정신이 단순히 돈벌기 위한 철학이나 이윤 극대화의 철학의 범주를 넘어서서 하나의 독립적인 에토스(ethos)를 상징하고 있으며, 다른 경제 체제에서는 발견하기 어려운 일련의 경제적 덕목들(economic virtues)을 내포한 윤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베버의 자본주의 정신은 퀴른베르거(Ferdinand Kürnberger)가 소위 양키의 신앙 고백이라고 조롱했던 프랭클린(B. Franklin)의 다음의 글 속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시간이 돈임을 잊지 말라. 매일 노동을 통해 10실링을 벌 수 있는 자가 반나절을 산책하거나 자기 방에서 빈둥거렸다면, 그는 오락을 위해 6펜스만 지출했다 해도 그것만 계산해서는 안 된다. 그는 그 외에도 5실링을 더 지출한 것이다. 아니 갖다 버린 것이다.

신용이 돈임을 잊지 말라. 누군가가 자신의 돈을 지불 기간이 지난 후에도 찾아가지 않고 나에게 맡겨 두었다면 그는 나에게 이자를 준 것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 기간 동안 그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준 것이다. 좋은 신용을 가졌고 그것을 잘 이용한다면 대단한 액수의 돈을 쌓을 수 있다.

돈이 번식력을 갖고 결실을 맺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라. 돈은 돈을 낳을 수 있으며 그 새끼가 또다시 번식해 나간다. 5실링은 6실링이 되고 다시 7실링 3펜스가 되어 결국 1백 파운드가 된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더욱 늘어나며 결국 효용은 보다 급속하게 증가한다.

신용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면 아주 사소한 행위라도 조심해야 한다. 당신의 채권자가 오전 5시나 오후 8시에 듣는 당신의 망치 소리는 채권자로 하여금 6개월을 유예시키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일하고 있어야 할 시간에 그가 당신을 당구장에서 보거나 주점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그는 바로 다음날 상환 독촉을 할 것이며 당신이 그 돈을 쓰기도 전에 다시 내놓으라고 할 것이다. 망치 소리는 그 외에도 당신이 당신의 채무를 잊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당신은 조심스럽고도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따라서 당신의 신용도 늘어난다.

베버는 여기에 단순한 처세술이나 사업상의 지혜가 아닌 독특한 윤리가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고대나 중세에서는 가장 천박한 형태의 탐욕으로 간주되었을 이 글이 자본주의 정신을 가장 순수하게 담고 있다고 말한다. 신용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자본을 증식시키는 일이 자기의 목적이며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의 핵심이다. 또한 정직과 신용, 시간 엄수, 근면, 검소 등도 이 글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유익한 미덕들이다.

자본주의 정신의 뿌리는 노동이 신의 소명이며 부는 은총의 표시라는 신앙 하에 근면, 검소, 자기 수양, 그리고 무엇보다 미래를 계획하고 저축하는 생활 태도를 강조한 루터와 칼뱅의 신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가장 큰 죄악이 시간의 낭비이며, 전력을 다해 자발적인 삶의 향락과 그 향락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배격하라는 금욕주의 탄생의 배경이 되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기의 맡은 바 일에 전력 투구해야 하며, 많은 경우에 그야말로 사력을 다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과 장인 근성이다.

2) 자본주의 정신의 실천

(1) 상도(商道)에 입각한 부의 축적

자본주의 정신은 이윤 추구 성향을 포함하면서도 그를 한 단계 초월하는 도덕적 자질로 이루어져 있다. 자본주의 정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혹은 교묘한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행위와 양립할 수 없다. 황금을 보기를 둘 같이하는 행위가 자본주의 정신의 전형일 수는 없지만, 황금을 얻기 위해 모험을 마다하지 않고 경쟁자들과 공정한 경쟁을 벌인다면, 이는 자본주의의 덕목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첫째 이익을 적게 남기고 많이 파는 것, 둘째 적절한 가격 매매, 셋째 정직한 신용 본위가 그것이었다. 만덕은 철저히 신용을 바탕으로 일을 처리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직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사업을 꾸려 나갔다. 만덕은 기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반층 부녀자의 옷감, 장신구, 화장품 등을 염가로 공급했다. 나아가서 관가의 물품까지도 조달하는 등 만덕의 객주(客主)는 큰 규모의 무역 거래소가 되었고, 몇 년 만에 만덕

은 제주의 거상(巨商)이 되었다.

만덕이 따르고 보여준 경제 활동의 준칙은 배버가 분류한 바, 목적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천민 자본주의(pariah capitalism) 정신과 구별되는 성실과 신용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 정신의 표현이었다. 도덕이나 상도와는 무관한 개인적 이윤 추구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의무로서의 일에 대한 엄격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극대 이윤만을 쫓기보다는 상 거래의 도(道)를 지키는 가운데 필요한 최소한의 이윤을 추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금욕과 검소한 생활 태도

여성의 모든 재능이 억압받던 조선 시대에 만덕의 성공은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그만큼 많은 화제를 낳았기도 하였다. 객주를 통한 유통업에 성공하여 거상이 되었지만 만덕의 일상 생활은 언제나 검소했다. 소유 자체가 유혹일 수 있었으나 그녀의 생활은 검소하고 소박했다. 풍년에는 흉년을 생각해 절약하고,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해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만덕의 생활 철학이었다.

풍랑 때문에 육지와와의 거래에 문제가 생기면 하늘을 쳐다 볼 수밖에 없는 제주도 지리적 특성을 감안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나갔다. 평소에도 풍년이 들면 흉년들 때를 대비하여 절약하고 비상 물품을 비축하였다. 늘 주변 사람들에게는 편안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늘을 우러러 그 은덕에 감사하고, 아래로는 어렵게 고생하는 사람을 생각하여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당부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리고 재능과 성실함을 지닌 사람은 여자라도 데려다 일을 가르치고 기회를 주는 일을 잊지 않았다.

만덕은 금강산 구경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도 사업을 계속하였고 검소한 생활을 잊지 않았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리는 사람에게서는 쌀을 주는 등 자선 사업에 주력하였다. “재물을 잘 쓰는 자는 밥 한 그릇으로도 굶주린 사람의 인명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썩은 흙과 같다”는 만덕의 생각 속에서 그녀가 재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처럼 검소하고 금욕적인 삶의 모습이 그리고 나눔과 베품을 실천하는 자선과 봉사의 삶이 제주 도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만덕 할머니로 불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3) 나눔과 베품의 삶과 실천

베버에 따르면 이윤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은 자기 소명에 충실하여 자기 영혼을 구제하는데 있기 때문에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는 이웃에 대한 봉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가들의 이윤 추구 행위를 자본주의 원리라고 하고, 이윤 추구 행위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한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이 전제된 이윤 추구를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윤 추구의 경제 활동에는 이웃에 대한 봉사라는 자본주의 덕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원리는 충실하게 이전되었지만, 자본주의 정신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경영 활동을 한다. 그러나 사회가 진정 요구하는 기업은 반드시 윤리 경영이 이윤 극대화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만덕의 사업 경영과 아무런 대가 없는 자선 행위는 이웃에 대한 봉사를 전제로 한 자본주의 정신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제주는 정조 16년(1792)부터 흉년이 계속되었고, 1794년에는 한 해에 제주 도민의 30%가 굶어 죽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였다. 정조 19년(1795) 윤2월 제주 도민을 구휼하기 위해 조정에서 보낸 곡물 1만 1천 석을 싣고 떠난 두 번째 수송 선박 중 다섯 척이 침몰하자 상황은 극에 달했다. 이 소식을 접한 만덕은 자신의 전 재산을 구호 사업에 회사하기로 결심하였다. 전 재산을 풀어 육지에서 들여온 곡식 500여석 가운데 450여석을 진휼미로 내놓았다.

당시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제주 도민들도 구휼에 동참하였다. 전 현감 고한록(高漢祿)은 300석을, 장교(將校) 홍삼필(洪三弼)과 유학(幼學) 양성범(梁聖範)이 각각 1백석을 내놓아 구휼하였다. 고한록의 기부에 대해 제주 목사 이우현이 '무려 300석'이라고 말한 것이나 이 소식에 접한 정조가 "이들이 1백석을 자원 납부한 것은 육지의 1천 포(包)와 맞먹는다"고 말한 것으로 볼 때 만덕의 기부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만덕의 기부는 기녀 출신의 여성으로서 객주 운영과 유통업을 통해 얻은 막대한 부를 기아에 허덕이는 제주 도민을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기꺼이 내놓은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소유 그 자체는 유혹이다. 근대적 자본주의 정신과 근대적 직업 사상에 입각한 합리적 생활 방식은 기독교적 금욕의 정신에서 탄생한 것이다. 외적인 재화에 대한 관심은 마치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얇은 겂옷처럼 인간의 어깨에 놓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만덕의 삶은 재화에 종속된 전도된 삶이기보다는 소유와 재화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삶이었다. 우리가 만덕의 삶 속에서 느껴야 할 것은, 그것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 진정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런 선택이 진정 필요한 경우라면 무소유할 수도 있는 그녀의 자유로움이다.

만덕이 견지한 박리 다매, 정직 매매, 신용 본위의 세 가지 상거래 원칙은 그녀의 경제 행위가 자본가 정신에 입각한 것임을 보여준다. 부의 축적 과정에서 상(商) 윤리와 도덕을 지켰으며, 막대한 부에도 불구하고 늘 검소한 생활을 했다는 점은 그녀의 경제 행위가 서구적 자본주의를 가능하게 했던 자본주의 정신에 상응하는 우리의 상도(商道)에 근거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소에서는 기름을 짜내고 사람에게 주는 돈을 짜내는 철학'이 아니라 자신의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나눔과 베품의 미덕을 실천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경제 활동이 윤리에 의해서 지탱되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것은 베버가 지적한 천민 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를 극복할 수 있는 일종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허만 칸(H. Kahn)은 유교 윤리와 자본주의 발달의 함수 관계에 기초하여 고도 성장을 이룬 동아시아 국가들을 신유교 자본주의 문화를 정의한 바 있다. 베버는 유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장애가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학자들은 유교 윤리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들은 유교 윤리가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한 요소를 강조하면서 신유교 자본주의 문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자신과 가족의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경쟁적인 헌신

둘째, 발전의 도구로서의 교육에 대한 존중심

셋째, 일에 대한 헌신, 근면, 자기 수양에 관한 가치 존중

넷째, 실용적인 목적 추구에 걸림이 되는 종교적, 이념적 제약이 없음

다섯째, 권리보다는 의무에 충실하고 위계적인 조직에 참여하여 생산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윤리 의식

만덕의 경제 활동 속에는 서구적 의미의 자본주의 덕목 이외에도 위에서 제시한 신유교 자본주의의 요소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만덕이 자신과 가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혼신을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는 것은 신유교 자본주의의 핵심적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으나 그가 축적한 자본과 그가 행한 자선을 통해 결국에는 가족을 구제하고 가족과 화해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경제 활동이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가족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혼신의 과정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에 대한 헌신과 근면 등의 문화적 가치 역시 만덕의 경제 활동에 배어 있는 기본적 덕목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정신에서 강조하고 있는 소명과 장인 의식에 못지않게 전통적인 유교 문화 속에서도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조출경야귀독(朝出耕夜歸讀)의 정신은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만덕의 삶의 태도는 바로 이와 같은 노동 중시 즉 일에 대한 헌신과 근면의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된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신유교 자본주의 정신의 구체적인 표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평가는 만덕의 치부 그리고 나눔과 배품의 실천이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에 필적하는 상도와 윤리에 기초한 것이었음은 물론 오늘날 동아시아의 정신적 가치로 간주될 수 있는 신유교 자본주의의 덕목에 기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만덕의 경제 활동과 그녀의 삶 속에는 서구 현대의 자본주의 정신이 체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국가의 경제 성장을 통해 새로이 주목받고 있는 신유교 자본주의의 덕목들이 융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 김만덕의 성공과 기업가 정신

1)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최근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을 책임지는 21세기형 CEO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찍이 슈페터(J. Schumpeter)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기업가에서 찾은 바 있듯이, 자본주의의 기둥이 되는 계층은 기업가들이다. 오늘날 CEO는 첨단 기술과 마찬

가지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조하는 경제 수단의 총합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만덕을 성공적인 여성 기업가 나아가 여성 CEO의 전형적인 모델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자본과 사업 경영이 화두가 되고 있는 오늘날, 그녀는 조선 시대의 성공한 여성 기업가, 여성 CEO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조선 시대의 여성으로 탁월한 경영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였고 이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오늘날 기업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을 완수했다는 점에서 만덕은 오늘날 여성 기업가의 전형적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만덕이 거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그 이후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가 오늘날 기업가들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행태에 하나의 주요한 준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덕에게서 자선과 봉사의 의미뿐만 아니라 성공한 기업가로서의 능력을 찾는 작업은 조선 시대 한 여성의 정체성을 확대하고 그녀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여는 것이기도 하다. 만덕은 성공한 여성 경제인 그리고 여성 CEO의 모델이다. 만덕이 18세기 조선의 주변부인 제주에서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고 세상을 꿰뚫는 안목을 바탕으로 유통업을 개척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찰력과 안목이 강한 추진력과 결합되면서 막대한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른바 기업가 정신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기업가 정신의 진작

(1) 시대 변화를 읽는 통찰력과 개척 정신

김만덕이 살았던 조선 영·정조 시대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의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그녀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었고, 그녀 자신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과감한 투자를 결행하였다. 만덕의 이와 같은 결단은 유통업에 대한 관심과 진출로 결실을 맺게 된다. 영·정조대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이에 따른 상업의 발달은 조선 후기 양반 사회는 물론 서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시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상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 가운데 상품을 매점하거나 독점함으로써 이윤을 취하는 도매상인 도고

(都賈)가 출현하게 되었고, 이는 서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만덕은 운송 체계에 기초한 유통망이 상업 발전의 근간이라는 사실을 간파하였다. 그가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투자한 분야가 바로 유통업이다. 18세기 중엽은 전국적 유통망이 갖추어지던 시기였다. 당시 유통망은 육상과 해상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육상 교통이 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해상 교통의 중심은 포구(浦口)였다.

해상 교통은 육상 교통에 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유리하였고, 물질을 통한 상품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해상이나 강상 교통의 요지에 포구가 설치되었다. 내륙 각지에는 5일장인 장시(場市)가 있었고, 해안과 강가의 포구도 흥청거렸다. 장시와 포구가 상품 유통의 거점이 되면서,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장시와 장시, 장시와 포구, 포구와 포구가 서로 연결되어 전국이 하나의 상권으로 형성되어 갔다. 내륙에서는 마필(馬匹)에 의한 육운(陸運)이, 연해안 또는 수로에서는 선박에 의한 수운(水運)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만덕이 주목한 것은 바로 포구가 지닌 유통망으로서의 가치였으며, 이를 위해 포구에 객주(客主)를 차리게 되었다. 객주는 여관의 구실도 했지만 외지 상인들의 물건을 위탁받아 팔거나 거간하는 중산상의 역할도 하기도 하였다. 만덕은 객주를 중심으로 제주의 양반층 부녀자에게 육지의 옷감과 장신구, 화장품 등을 팔고, 제주 특산물인 미역, 전복, 표고, 양태, 말총, 녹용과 굴 등을 육지에 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다. 그녀는 관가의 물품도 조달하게 되었고, 포구의 상품 유통을 독점적으로 담당하는 포구 주인권(浦口主人權)을 획득한 것으로 추측된다. 만덕은 자신의 포구에 적극적으로 선상을 유치했고 그 자신의 선박까지 소유하게 되었다.

격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통찰력과 예견 그리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기업가로서의 만덕이 제주가 지닌 주변부의 지리적 한계와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태생적 굴레를 극복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감한 도전과 성취는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기업가 정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만덕이 18세기 조선의 사회 경제적 변화 속에서 보여준 기업가로서의 능력은 21세기 기업의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고 탐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2) 장기적 비전을 지닌 여성 기업인

성공적인 기업가는 시대 흐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예측을 바탕으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은 환상이 아니라 차별화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치이다. 현재 처한 위치와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의 시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가는 단기적 경영에 집착하기보다는 긴 안목을 가지고 중장기적 비전에 따라 자신과 기업의 목표를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에 CEO의 핵심적 덕목 가운데 하나로 강조되는 것이 바로 마케팅 선견력이다.

마케팅 선견력이란 미래의 기회에 대한 객관적이고 창조적인 예견 능력을 말한다. CEO는 근시안에서 벗어나 현존하는 시장과 상품의 개념을 뛰어넘어 화이트 스페이스(white space, 현재 비어 있는 새로운 시장)를 개척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과 기업을 보는 시각을 수정하거나 또는 고정 관념을 깨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할 때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전혀 새로운 산업을 인식하고 예견해 장기간에 걸치는 산업의 흐름을 주도함으로써 기업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끼쳐야 한다. CEO는 마케팅 선견력을 제고해 미래의 경쟁 우위를 추구하며 꿈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전망은 장기적 관점에서 가능하다.

만덕의 사업 경영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생존에 강조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유통업을 개척하면서 신용 본위의 원칙을 견지했다는 사실은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넘어서 사업의 장기적 생존 가능성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신용을 토대로 절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재물을 추구해야 한다. 만덕은 자신의 사업을 경영하면서 이와 같은 신용 본위의 경영 철학에 입각한 장기적 비전을 지니고 있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보는 사람들은 절제와 균형 감각을 잃지 않는다. 만덕의 장기적 비전에 기초한 사업 경영은 오늘날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전형적인 덕목 가운데 하나이다.

(3) 혁신과 모험을 통한 기업가 정신의 실천

기업가는 기존의 것을 좀더 잘하는 것보다는 뭔가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인식한다. 기업가는 현상을 뒤집고 또 해체한다. 슈퍼터가 공

식화한 것처럼 기업가가 수행할 과제는 창조적 파괴다. 기업가들은 변화를 정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건강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기업가는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들은 신의 법칙과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기업가들은 언제나 변화를 탐색하고,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의 정의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란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행동 양식의 문제이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매우 위험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기업가는 원칙적으로 생산성과 성과가 낮은 분야에 투입된 자원을 생산성과 성과가 높은 분야로 이동시킨다. 기업가에게 필요한 것은 위험을 무릎 쓰고 과감한 투자를 행하는 도전 의식이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 요소를 발전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이다. 따라서 기업가 정신이란 위험 부담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전제로 하여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새로이 창조하는 과정이다. 모험과 도전을 극복하고, 어려움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남다른 인내심과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세 등이 기업가 정신이다.

기업가 정신은 창의적이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전략적 사고에 기초해야 한다. 또 혁신, 성장, 창의성, 위험 추구, 특이함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디에 기회가 있는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어떤 자원이 필요한가, 그와 같은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어떤 구조가 가장 알맞은 것인가를 끊임없이 살피는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다. 따라서 의사 결정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오늘날 요구되는 기업가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기업가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한 변화의 추구, 모험과 도전을 통한 발전 기회의 창출 등이 오늘날의 기업가들이 지녀야 하는 덕목들이다. 오늘날 우리가 만덕을 18세기 조선의 여성 기업가 그리고 여성 CEO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만덕이 당시에 보여주었던 기업가로서의 위와 같은 자질 때문일 것이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매우 제한적이었고 경제 활동의 대상과 영역이 지극히 여성적인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덕이 유통업을 개척했다는 사실은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변화와 모험 그리고 도전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 여성은 기본적으로 가사 노동의 종사자로 간주되어 왔으며, 따라서 직업의 선택에 있어서도 가사 노동과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기가 용이하였다. 기생의 하녀로 생계를 유지하다 기녀의 삶을 살았던 것이 만덕이었다. 그 후 양인의 신분을 되찾아 만덕이 시작한 일이 객주를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모두 여성에게 부과되었던 가사 노동과 관련된, 가사 노동 연장적인 직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만덕은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기반한 노동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여성은 가정의 울타리 내에 머무르면서 시부모 봉양, 남편 내조, 가사일과 자녀 양육 등 전통적인 성 역할에 충실한 것이 이상적인 삶으로 간주되던 시대에 만덕이 직업을 통해 사회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일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만덕의 경제 활동이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만덕은 전통 사회에서 여성이 손쉽게 구할 수 있었던 직업이나 가부장제 사회가 필요로 했던 직업에 종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분야 즉 객주를 기반으로 한 유통업을 개척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변신은 격변하는 사회 경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과 이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적극적인 도전과 모험 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만덕은 가부장적 유교 사회에서 여성 특히 기녀 출신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시대 변화 속에서 기회 요인을 찾아내는 통찰력과 안목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판단이 강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음으로써 자신의 사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경영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만덕의 삶 속에서 조선 시대 최초의 여성 기업인 그리고 성공한 여성 CEO의 자취를 탐색하게 하는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혁신적 사고와 개척 정신, 정열과 집념, 헌신과 봉사의 모습이 조선 시대 최초의 여성 기업인 만덕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자 기업가 정신의 표현이다.

참고문헌

- 권명중, 「거상 임상옥의 상도 경영」, 거름, 2002.
- 김건우 편역, “김만덕”, 「나는 당당하게 살겠다」, 문자향, 2003.
- 김경애,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pp. 82-102.
- 김경애, “시대와 불화하지 않으면서 시대를 뛰어넘은 여성 기업인 김만덕”, 「함께 가는 여성」, 2004, pp. 34-36.
- 김영진 역, 심노승 저, 「눈물이란 무엇인가」, 태학사, 2001.
- 김원주, 「경영윤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 김준형, “만덕 이야기의 전승과 의미”, 사단법인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17집, 2000, pp. 1-26.
- 박무영 외, 「조선의 여성들: 부자유한 시대에 너무나 비범했던」, 돌베개, 2004.
- 박성수 역, 막스 베버 저,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1996.
- 박용옥, “만덕”,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여성」 제176호, 1981, pp. 50-51.
- 박헌준 편저, 「한국의 기업윤리」, 박영사, 2004.
- 변종현, 제주국제협의회 제17차 학술대회,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토론자료, 2004, pp. 107-9.
- 변종현 외, 「현대 사회와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2001.
- 안진환 역, 조나단 B. 화이트 저, 「애덤 스미스 구하기」, 생각의 나무, 2003.
- 윤치부, “인물전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삶”,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 「깨어나는 제주 여성의 역사」, 2001, pp. 57-69.
- 이관춘,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학지사, 2003.
- 이규태, “제주기생 만덕”, 「역사에 소문나지 않은 여인」, 기린원, pp. 104-109.
- 이덕일, 「이덕일의 여인열전」, 김영사, 2003.
- 이재규 역, 피터 드러커 저,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업가 정신」, 한국경제신문,

2004.

이전문, “제주의 첫 여상인 만덕”, 「조선의 상공인 열전 부자되는 이야기」, 조선일보사, pp. 119-126.

정조실록 19년 5월 11일조

제주도, 「구원의 여상 김만덕」, 제주도청, 1989.

채제공, 「만덕전」.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강의」, 동녘, 2004.

Jones, L. P. & Sakong I., *Government Business and Entrepreneu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The Korean Case*, 1980,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Kahn, H., *World Economic Development: 1979 and Beyond*, 1979, London: Croom Helm.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V. 정책제언: 범국민적 운동으로

김 은 석

1. 논의 배경

최근 여성의 문화에 대한 논의가 부쩍 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옥죄어왔던 가부장적 질서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기억들이 사회적 담론의 장에서 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여성의 삶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식의 갖가지 금기사항으로 여성의 삶을 터부시하던 현실을 감안할 때 실로 도전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김만덕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김만덕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은혜의 빛을 온 세상에 번지게 한(恩光衍世)의 주인공인 김만덕의 자선의 손길을 입지 않은 당시 제주도민들이 있을까? 현재 그 후손들이 모여사는 곳이 다름 아닌 제주도이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은 김만덕 추모사업을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범국민적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 보고서는 김만덕 연구의 집대성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 출발이 김만덕 연구의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제주도민, 제주여성의 정체성을 위한 역할에 일조하고, 사회의 구심점을 세우는 정신문화의 터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또한 여기서 제시되는 정책제안이 온 도민의 관심 속에 국민적인

사업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뜻있는 사회단체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시된 것이다.

2. 추진방향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를 기록하는 일이 중요했던 이유는 그런 기록이 후손들의 삶에 유용한 교훈을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청사에 길이 빛날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과 위대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위인들의 업적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길이 추앙되어야 할 기념비적 역사(monumentalische Historie)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다.

V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책적 제언은 제주도가 주체가 되어 김만덕에 대한 역할과 21세기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재조명함으로써 도민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있다.

잘 알다시피 김만덕추모사업은 일단 순수한 지적 관심에서 출발하는 외형과 실재를 지닐 수 있다. 앞의 II, III, IV장은 학술적 차원에서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II, III, IV장의 내용, 즉 김만덕 관련 학술적 접근과 이념적 지향성을 구체화하고 극대화하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이는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단 순수한 지적 탐구를 행정적 실천과 접목시키고자 할 때 어떤 방향성을 담은 활동을 대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 방향을 설정했다..

1) 지속가능한 추모사업

김만덕 추모사업의 이념적 지향점과 기능적 효율성 내지는 효과 사이에는 수많은 내용이 존재하며 그러한 내용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선부른 정책입안과 과도한 욕심에서 나오는 실행은 오히려 안 이루어지느니만 못한 경우가 적지 않다. 여기서는 도민의 참여 속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모색했다.

2) 공익적 차원에서의 접근

물론 김만덕추모사업이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나 사회적 통합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자체로는 직접적인 이익을 낳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 사회교육적 차원을 위해 제주도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공익적 차원에서 접근했다.

잘 알다시피 지방정부가 문화예술부문의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우선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나서서 행하기 어려운 커다란 규모의 사업이나 또는 각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이익을 주지 않는 공공 성격의 일에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김만덕연구 및 사업도 그런 범주에 속한다.

3)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 대안 모색

김만덕 관련 정책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상적이고 훌륭한 방안을 내놓으며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짚다고 해도 그것이 제주 지역의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재원조달과 실천을 담당할 구체적인 인력 수급에 있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계획이 된다.

여기에 덧붙여 현재 우리 사회에서 기념사업과 관련된 문화예술정책이 입안되고 내부결정과정을 거쳐 제출되었다고 할 때 그것이 실제 실행될지의 여부는 상당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의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다.

4) 명확한 목표 설정

도민참여로 김만덕을 기억하고 의미있게 김만덕의 뜻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박제화된 기념행사의 관성을 극복하는 데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김만덕기념사업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는데 있다.

3. 기대효과

- 1) 김만덕 정신의 계승과 사회적 가치의 재발견을 통한 도민화합과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화합의 촉진
- 2) 제주인의 정체성 제고
- 3) 사회봉사의 이념적 지향성 확보
- 4) 지역주민에게 이웃사랑과 봉사의 중요성 교육

4. 정책제언

구 분	내 용
만덕상 확대	○ 시상종류와 상금 증액 ○ 시상범위의 확대
학술연구사업지원	○ 사료발간 및 김만덕 관련 유물 제작 ○ 연구자료를 집대성하는 총서발간 ○ 도민교육용 교육자료 발간 ○ 전국적인 학술심포지엄개최
만덕묘 성역화 사업	○ 김만덕묘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발족 ○ 〈만덕비 지방기념물〉 지정 ○ 김만덕 동상건립 ○ 김만덕 거리조성
홍보사업	○ 김만덕 축제 개최 ○ 사이버김만덕기념관 ○ 화인물선정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전개

1) 만덕상 전국 확대

(1) 현황

만덕봉사상은 조선시대 의녀(義女) 김만덕(金萬德)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제주지역 여성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21세기 새로운 김만덕상을 재조명하는 작업에서 보듯이 김만덕을 단지 자선가라는 차원에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이 스테레오 타입화된 이미지로는 21세기 상징적 인물로는 한계가 있다.

김만덕의 기본정신은 1) 평등성 2) 도전성 3) 문화성 4) 세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김만덕을 도에서 주관하는 만덕상을 단순히 봉사상 차원에 국한하는 시각을 수정하여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한국여성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면 한다.

(2) 정책제언

① 시상종류와 상금 증액

- 시상종류: 봉사상, 경제인상, 여성상
- 상금증액: 각 500만원

※ 경제인상은 여성경제인 중에서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인물을, 여성상은 여권신장 및 여성의 권익 증진을 위해 공헌도가 높은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

② 시상범위의 확대

- 대상범위를 전국으로 확대

2) 학술연구사업지원

(1) 현황

김만덕 연구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 즉 역시 한국 사회에서 주변적 인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연구성과도 많지 않다. 신사임당, 유관순처럼 연구물이 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자료발굴이 우선이다. 다음 이러한 자료발굴을

통해 김만덕을 재조명하는 연구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정책제언

- ① 사료발간 및 김만덕 관련 유물 제작 지원
- ② 연구자료를 집대성하는 총서발간 지원
 - 지금까지 김만덕관련 연구를 총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③ 도민교육용 교육자료 발간 지원
 - 도민 대상의 시민의식교육 교재개발
 - 청소년 대상의 교육교재 개발(책자와 영상자료 개발, 제작)
- ④ 전국적인 학술심포지엄개최 지원

3) 만덕묘 성역화 작업

(1) 현 황

사라봉 기슭 남서쪽에 있는 모충사(慕忠社)에는 의병항쟁 기념탑, 조국독립을 위해 일본에 투쟁하다 순국한 지사 조봉호 기념탑, 의녀 김만덕 묘탑이 있다. 또한 그녀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는 만덕기념관이 있다..그러나 기념관 내의 유물이 내용과 걸맞지 않으며, 빈약하다.

(2) 정책제언

- ① 김만덕묘의 지방기념물지정
- ② 김만덕 거리조성

참고적으로 수원지역 출신으로 국내 최초의 여성서양화가이자 문인인 나혜석을 기념하기 위해 수원시가 2002년 8월 효원공원 인근길 440m 거리에 나혜석 동상과 분수대를 세우며 조성했다.(정원나혜석기념사업회¹²⁶⁾)

126) 문화관광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서양화가이며 여권운동의 선구자인 정월 나혜석(晶月 羅蕙錫 : 1896~1948) 선생을 2000년 2월의 문화인물로 선정하였다. 나혜석선생은 우리

③ 김만덕동상제작

동상의 비용은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거보다는 범도민적 내지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건립하는 것이 의미있음

④ 김만덕묘 성역화사업 추진위원회 발족

- 공원조성 및 성역화, 기념관 확장, 김만덕객주집 복원 등의 사업 추진

4) 홍보사업

(1) 현 황

김만덕의 이미지가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내용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이지 못한다면 외면당하고 만다. 현재 김만덕 관련 홍보는 전무하다시피하다.

(2) 정책제언

① 김만덕축제: 제주여성은 위대하다

탐라문화제때 김만덕축제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금년, 10월 3일 대한민국여성축제가 열렸는데 여기서 축제의 첫째 테마인 '역사 속 여성인물 바로세우기'는 6명의 역사 속 인물(웅녀·신사임당·선덕대왕·장화왕후·병허각이씨¹²⁷)에게 제례를 드리는

나라 여성으로서는 일본 도쿄의 여자미술학교에서 유화를 공부한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이다. 1921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개인전시회를 열었으며, 〈자화상〉, 〈스페인풍경〉, 〈파리풍경〉 등의 작품을 남겼다. 나혜석은 단지 화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감각으로 소설·시 등의 문필활동까지 하여 1918년 뚜렷한 여성의를 보여주는 소설 「경희」를 발표한 근대최초의 여성작가이며, 3·1운동때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중국 안동현(현재의 중국 단둥시)에서는 외교관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독립운동가들의 편의를 돌본 민족주의자기도 하였다.

127) 실학자 병허각 이씨는 『규합총서』를 쓴 조선 후기 실학자이다. 여성이 썼기 때문에 '가정백과'로 폄하되지만 방대한 내용을 쉽게 풀어쓴 훌륭한 실학서였다. 당시 의식주에 대한 학문적 탐구는 남녀를 떠나 실용적 학문을 추구했던 '실학'의 탐구대상이었다. 주사의(술과 음식), 봉임축(바느질과 길쌈), 산가락(시골살림의 즐거움), 청낭결(병 다스리기), 술수략(집의 방향에 의해 길흉 가리는 법)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문화재단 실학축전집행위원회는 2004년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형식으로 펼쳐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성을 테마로 한 축제로는 빙허각이씨축제, 허황옥실버문화축제¹²⁸⁾가 있다. 허황옥실버문화축제의 주인공인 가락국의 왕후 허황옥은 모험심과 국제주의, 낯선 환경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닌 도전적인 여성이었다. 그는 이 땅에 도착하자마자 차문화, 불교문화 등 선진문화를 심고 가락국을 여왕왕국이라 부를 정도의 통치능력도 보여주었다. 또한 두 아들에게 자신의 성을 물려 줄만큼 독자적인 자존의 힘을 지닌 평등여성이기도 했다.

따라서 황옥실버문화축제는 김해 여성노인들이 허황후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하고 문화적이며 국제적인 여성 활동을 지향하려는 문화제로 또 그 심오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오늘날에도 손색없는 평등사상과 문화성으로 작년 1회 때 놀라운 감동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② 사이버김만덕기념관

21세기 새로운 김만덕상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사이버김만덕기념관은 이러한 총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공간으로 사료된다. 사이버 기념관의 구성은 <김만덕의 생애와 시대적 분위기를 위한 전시관>, <역대 만덕봉사상 관련 기획전시관>, <각종 사료를 전시, 열람할 수 있는 사료관>, <기타 제주여성 인물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장보고사이버기념관 (<http://www.changpogo.or.kr/intro.asp>), 안중근사이버기념관 (<http://www.greatkorean.org/>), 안창호사이버기념관(<http://www.ahnchangho.or.kr/>), 세종대왕기념사업회(<http://www.sejongkorea.org/>)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③ 화폐인물선정을 위한 노력¹²⁹⁾

오늘날 여성을 새 화폐의 모델로 내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인물

도문화의전당, 수원효원공원, 수원화성행궁, 남양주다산유적지 등에서 “실학축전 2004경기”를 개최했다. 여기서 조선후기 영조때의 대표적 여성 실학자 빙허각 이씨를 새롭게 조명하는 행사를 가졌다.

128) 황옥실버문화축제는 김해 여성노인들이 허황후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등하고 문화적이며 국제적인 여성활동을 지향하려는 문화제로서, 그 심오한 역사적 의미와 더불어 오늘날에도 손색없는 평등사상과 문화성으로 전국적인 문화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성노인문화제이다.

을 화폐에! 시민연대'는 여성화폐모델운동은 여성운동의 하나라고 주장한다. 특히 새 화폐 발행이 가시화되면서 화폐모델로 시대적 소명의식을 담은 모델 제시 역시 활발한 가운데 여성을 화폐모델로 세우자는 운동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여성화폐모델세우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강릉은 신사임당 탄생 500주년인 올해 신사임당에 대한 재해석과 사임당을 새 화폐모델로 내세우기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김만덕기념사업회(대표: 강재업, 고영자, 고두심, 부청자, 송동효)는 '김만덕을 한국화폐모델로 만들자'는 범도민운동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김만덕 학술대회를 제주와 서울에서 개최, 만덕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한편 화폐모델로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려고 한다. 따라서 이 운동을 단지 민간에게만 맡기지 말고 도의 행·재정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 129) 새 화폐 발행이 가시화되면서 화폐모델로 시대적 소명의식을 담은 모델 제시 역시 활발한 가운데 여성을 화폐모델로 세우자는 운동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여성화폐모델세우기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발족한 '여성인물을 화폐에! 시민연대'는 3월초 추진위원단을 결성하고 한국은행 총재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현재 100인회 구성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오는 5월 여성인물이 등장하는 세계 각국의 화폐 전시회를 열고 심포지엄을 통해 누구를 넣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종합할 예정이다. 현재 이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http://cafe.daum.net/womenmoney>)에는 45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한 의견 교환을 나누고 있다.